

퀸즈랜드

퀸즈랜드 자유여행 가이드



Queensland

Australia



Cairns . .

Great Barrier Reef

Whitsunday Island . .

Hamilton Islan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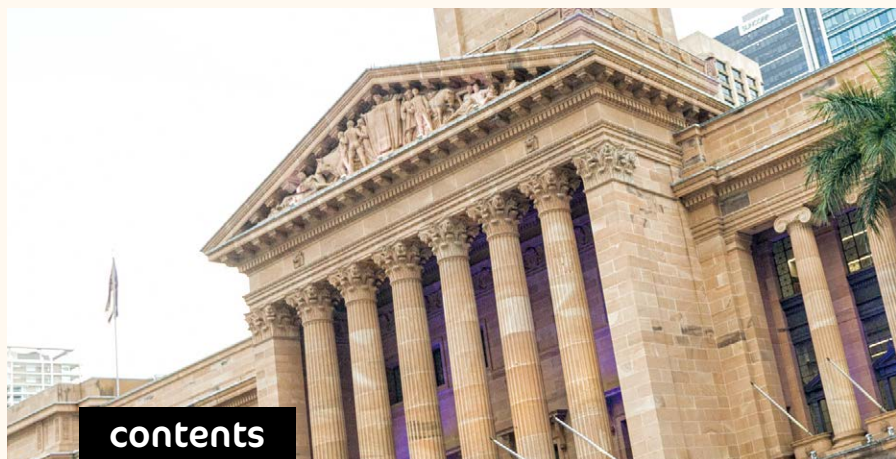
Fraser Island

Sunshine Coast . .

Moreton Island . .

Brisbane . .

Gold Coast



Essay

임성현의 '나의 퀸즈랜드'6

Travel Info

케언즈62

쿠란다 마을68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74

해밀턴 아일랜드80

프레이저 아일랜드86

선샤인코스트94

모튼 아일랜드102

브리즈번108

골드코스트126



Themes

퀸즈랜드 대표 관광지140

퀸즈랜드의 바다142

모험을 즐기는 당신이라면144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146

로맨틱한 신혼여행148

맛있는 여행150

쇼핑매니아151

Basic Info

퀸즈랜드 기본 정보152

퀸즈랜드 추천 루트156

제작후기158

#SUNCHYUN_TRIP

케언즈부터 브리즈번까지, 15일의 호주 퀸즈랜드는 나에게 평소 꿈꾸던 버킷리스트를 따라 떠났던 꿈같은 여정이었다.

특히 좋았던 브리즈번과 도전을 하게 해준 골드코스트,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야생으로 떠났던 프레이저 아일랜드까지...! 잠시였지만, 행복했던 나의 여행을 소개한다.

임성현

JTBC 히든싱어2 조성모 편에 우승을 통해 처음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후, 현재는 그룹 '더 히든'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도전과 여행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 미국 서부 여행 이야기를 담은 <꿈, 사랑, 그리고 특별한 일상> 책을 출간하는 등 여행작가로서의 활동도 함께 하는 작가이자 가수다.





케언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선샤인코스트

브리즈번

프레이저 아일랜드

골드코스트



A person in a white shirt and dark shorts stands on a sandy beach, looking out at the ocean. The background features a hazy coastline with mountains under a blue sky with light clouds.

나의 쿼츠랜드

임성현의 버킷리스트 여행

사람마다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획 없이 여행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계획 없이 어디론가 떠나왔고 이번 여행도 계획 없이 가려 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퀴즈랜드에 대해 검색을 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제대로 계획을 짜보고 떠나 볼까?”

검색을 해보니 퀴즈랜드에는 참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했다. 하나둘씩 찾아볼수록 이번엔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번엔 계획을 한번 짜보기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버킷리스트 작성!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도 이번엔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나열해보았다. 쪽 써놓고 보니 생각보다도 많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다니... 처음으로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모두 퀴즈랜드에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설레온다.

나의 버킷리스트 여행!
그렇게 난 퀴즈랜드로 떠났다.



버킷리스트 체크

- ✓ 서퍼들의 천국, 골드코스트 해변에서 서핑하기
- ✓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스킨스쿠버와 스노클링 하기
- ✓ 절대 할 수 없게 느꼈던 나의 한계에 도전하기
- ✓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스며들어 보기
- ✓ 캥거루, 코알라 같은 새로운 동물들과 친구 되어 보기
- ✓ 풍선을 타고 하늘 위를 날아 보기
- ✓ 숲속에서 캠핑하며 낭만 즐겨보기
- ✓ 사륜구동 자동차 타고 해변 드라이브 즐기기
- ✓ 잊고 살던 동심의 세계에 잠시 돌아가 보기
- ✓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집 탐방하기
- ✓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별 보러 가기



쿠란다 마을



쿠란다 마을로 가기 위해서 쿠란다 관광열차에 몸을 실었다.
쿠란다 열차는 창문을 열 수 있어 그동안 타본 기차와는 다르게 바람을 맞으며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 15개의 터널을 지나 쿠란다 마을로 도착하게 되는데 한 개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다. 어두컴컴한 터널 하나를 지날 때마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이랄까.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고 산속에서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폭포에 도달할 때쯤 달콤한 단잠에 빠지고 싶어졌다. 조용하면서도 힘차게 울리는 기차의 일정한 바퀴 소리는 자장가처럼 내게 속삭였고 창틈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은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여유로움이다. 그 여유로움은 곧 나를 나른하게 만들고 그 기분 좋은 나른함은 나에게 내려놓음을 선물한다.

바쁜 일상에 지쳐 여유로움마저 사치로 느껴질 때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 여행에서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사치를 부려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동물들과 친구 되기



캥거루와 코알라를 만남

호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캥거루와 코알라가 아닐까 싶다. 도로 한복판에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가끔은 길을 막고 서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

나는 동물을 멀리서 바라보는 건 좋아하지만 웬지 모르게 가깝게 다가가 만지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뭔가 무섭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니 그 친구들이 나를 더 무서워한다고는 한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떠나오기 전 나 스스로 다짐한 것 중의 하나인 동물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캥거루와 코알라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끔 영상에서 보면 엄청난 근육을 보유하고 있고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는 캥거루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고 걱정을 했던 내가 황당할 정도로 내 눈앞에 나타난 캥거루의 모습은 너무 귀여웠다. 근육질은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서울 거 같았던 눈은 어딘지 모르게 살짝 풀려있고...

너무 귀여운 캥거루가 나에게 다가와 옆에 앉는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이상할 거 같았지만 나름 그 촉감이 부드럽고 기분 좋았다.

코알라는 만나기 전에 내가 직접 만든 <코알라 모자 씌운 성희니 캐릭터 티셔츠>로 갈아입고 만났다. 나의 야심작이었는데 이 친구도 제법 좋아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좋아했던 거 맞겠지...?

어쨌든 동물들과 친해지길 바라는 성공한 거 같다.

현지의 맛집 탐방하기



캥거루와 악어 고기를...?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운명의 장난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일까?

현지의 맛집을 찾아다니던 중 예약했던 음식이 캥거루와 악어 고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난 충격에 휩싸였다. 사실 불과 하루 전에 캥거루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

그래도 나름 코알라 친구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스스로를 위로해보았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운명이었다. 이번 여행의 주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그 현지의 맛집을 찾아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도 도전해보기였는데 아주 잠시 후회를 했다.

매니저가 나와 한참을 설명해주고 간다. 호주에는 캥거루의 천적이 없어서 그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식용으로 쓰이지 않거나 로드킬로 죽지 않는 이상 캥거루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핑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먹어볼 용기를 내보았다. 용기를 내어 한입 먹어본다.

캥거루야... 정말 미안

그.런.데 정말 맛있었다. 흡사 소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을까... 악어 또한 맛있었다. 악어는 그래도 못되게 생겨서 (나름의 기준) 시식할 용기를 내는 게 어렵진 않았다. 악어는 약간 닭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을까.
어쨌든 성공!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보는 한 번쯤은 그곳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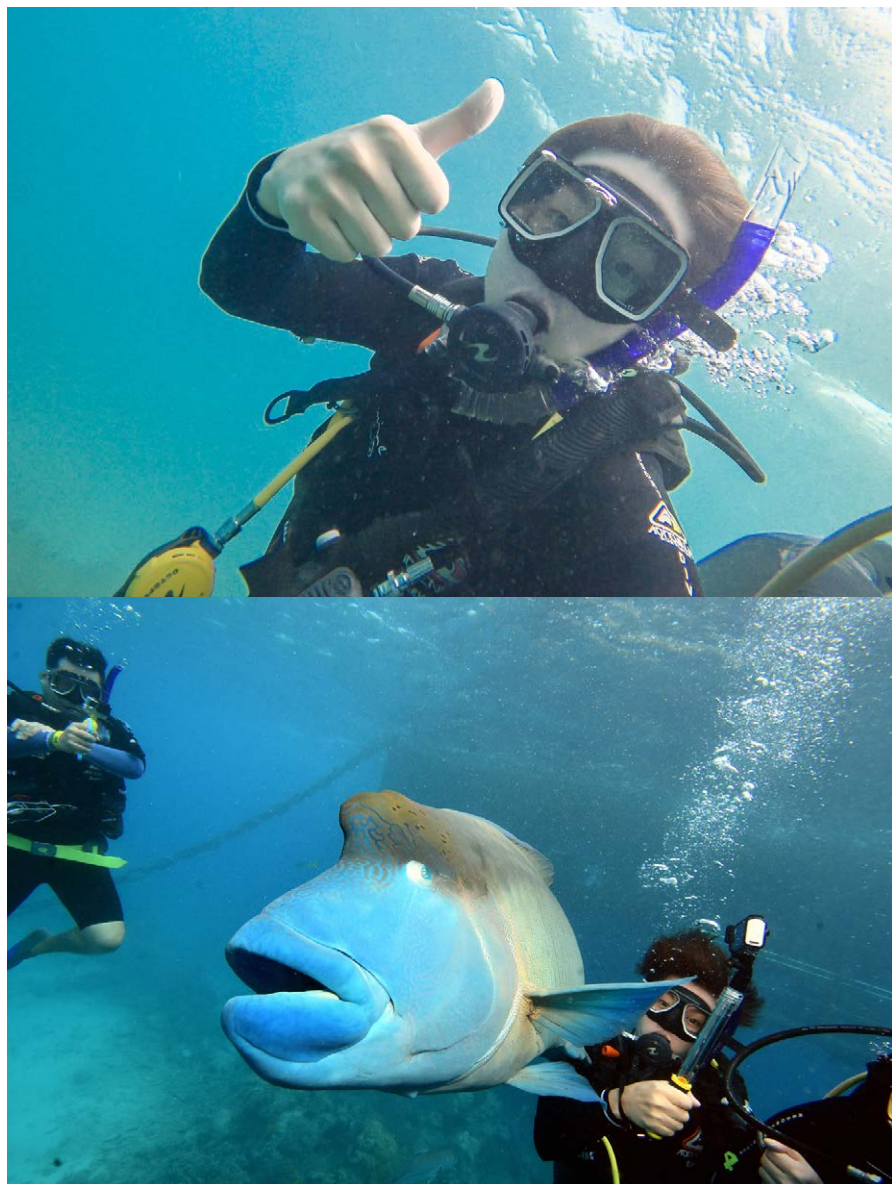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빠지지 않고 항상 순위에 올라있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물속 세상을 구경하고 싶지 않을까? 나 역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TOP3 안에 스쿠버다이빙은 항상 존재했었다. 그 꿈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이루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자연 광경이 엄청났다. 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레 물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 첫 경험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사실 글로 옮겨 적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잠수경을 쓰고 물로 들어가는 순간 내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인지 허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정말이지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상상했던 모습은 내 눈으로 본 세상에 1/10에 불과했다.

많은 이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다. 물속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그 생각을 꼭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라고!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고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세상의 아름다움은 직접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다고.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게 되는 것은 한정적이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를 가서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어보는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보통 여행을 할 때 있어서 그곳에 조금 더 깊이 스며들기를 원한다. 단 며칠이라도 내가 그곳에 사는 현지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도 좋지만 조금은 색다르게 운동복을 꺼내 입고 그 장소에 풍경을 배경 삼아 러닝을 해본다든지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걷다 보니 우연히 찾게 된 장소에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사실 많은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여행지의 곳곳을 찾아다니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브리즈번에서 자전거 타기!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고 많은 사람이 할 거 같지만, 여행객 중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적었다. 브리즈번 도심에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브리즈번은 걸어서 돌아보거나 차를 타고 다닐 때와는 달랐다. 그리고 같은 길이었지만 러닝을 해보고 싶어서 달려본 브리즈번강 변의 모습도 그냥 여행객의 모습일 때와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다. 어떤 모습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이곳에 살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분이 참 좋았다.



브리즈번 도심을 돌아다니다 내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곳곳에 있던 바비큐장!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그곳은 무료로 개방되어있는 바비큐 시설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난 오늘 밤 무조건 이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게 뭐 이런 거 아닐까?

브리즈번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해보는 것
이곳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이곳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

캐거루 포인트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먹는 고기의 맛은 정말이지 최고
였다.

특별한 장소만을 찾아다니고 여행했다면 절대 몰랐을 이 특별한 장소
이곳에서의 밤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현지인처럼 생활해 보기와는 조금 어긋나지만 조금은 다르게 나는 삼겹살을 사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 브리즈번 곳곳의 한인 마트에서 삼겹살과 김치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호주 사람들도 다 이곳을 쳐다본다. 시작하기 전 장난으로 분명히 이 냄새를 맡고 한 명쯤은 멈춰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할 거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이지 조깅을 하던 한 커플이 멈춰서 이런 맛있는 냄새는 처음이라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먹은 후에 반응은 뭐 너무 당연했다. 삼겹살의 아름다운 향은 정말이지 어디에서나 통하는 듯!

많은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사실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삼겹살의 냄새는 그들에게 특별했고 그건 당연하였다. 많은 외국인이 삼겹살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상 여담 끝!

해양스포츠 즐겨보기!



서퍼스 파라다이스

서퍼들의 로망이자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호주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나의 흥미를 자극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높은 파도에서 서핑하는 서퍼들의 영상을 보면서 도전해보고 싶어졌고 난 곧바로 양양으로 갔다. 반드시 서핑을 배워서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서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많이는 못 배웠지만 제법 기초적인 동작들을 배운 후 드디어 이곳,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도착했다.

첫 느낌부터가 매우 강렬했다.

드넓은 바다에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은 영상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멋있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다.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보드를 들고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한 번도 물과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고 수영조차 못하는 내가 보드 하나에 의지하여 내 키보다 높은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황홀한 경험이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파도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 부드럽게 미끄러져 앞으로 나아갈 때의 기분은 정말 그 어떤 짜릿한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보다도 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서퍼들의 천국인 이곳에서 꼭 많은 사람들이 이 황홀한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





스카이 포인트에 오르다!

호주 여행을 계획하며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내 안의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혼자서 오랜 시간 갈등을 했다. 검색하던 중 스카이프oint 클라임 체험을 보고 내 안에서는 큰 도전정신이 불타올랐지만 또 한 권에서 고소공포증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맴돌았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겨우겨우 이기게 되면서 난 클라임을하기로 결심했다. 도전하기로 한 당일 아침 스카이 포인트 앞에 마주했는데 323m의 엄청난 이 빌딩의 위압감에 난 짓눌렸다.

장비를 차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내내 이게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 건지 나 스스로 치열하게 싸웠다. 스카이 포인트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렸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 저 빌딩 위 사다리를 타고... 그리고 더 높이 계단을 올라 꼭대기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이런 나의 내적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이드분은 웃으시며 나를 끌고 갔다. 그 순간 호주에서 난 악마를 본듯했다. 문이 열리고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었다. 한 발 한 발 내 안의 공포심을 밟으며 위로 더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공포심을 극복한 나에게 주어진 상은 엄청났다. 한눈에 보이는 골드코스트 시내가 내 눈에 들어오자 내 안에 있던 공포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못 느낄 이 감정들... 오르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앞으로도 내 앞에 어떠한 도전들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성취감을 기억하고 무엇이든 도전해볼 용기를 낼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라본다.

나의 한계에 도전해보기!









맥도날드

이번 여행의 버킷리스트와는 별개로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다. 나의 에세이를 읽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전 세계 맥도날드를 모두 가보기!

이 전 여행지였던 미국을 다녀오면서 다섯 번째를 성공했고 이번 여행에서 드디어 여섯 번째 나라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수가 터무니없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이 터무니없던 작은 꿈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여섯 번째 성공지 호주! 이곳은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었다. 호주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던 앵거스 버거를 주문했다. 앵거스 버거는 과장을 좀 보태자면 먹어본 사람들이 마치 전설 속의 음식인 것처럼 극찬하여서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먹자마자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할 다음 사람이 나일 거란 확신이 들었다. 누구나 먹어봤을 법한 햄버거 맛이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맛보지 못할 묘한 맛이 공존했다.

호주에 온다면 앵거스 버거를 반드시 먹어보길 추천한다. 나의 길고 긴 도전의 여섯 번째 성공지인 호주 맥도날드는 매우 강추이다.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기



하늘을 날다



어린 시절 작은 기억으로 들어가 보자면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웬 이상한 아저씨들과 엄청 큰 풍선과 바구니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그 바구니에 올라탔고 그 풍선은 서서히 떠 올라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 내 눈 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다.

[언젠가 나도 저 바구니에 언젠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20년 뒤 난 지금 그 풍선 앞에 서 있다. 나도 이 바구니에 올라타면
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바구니에 올라탄
다.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꼬마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
다. 풍선이 점점 높이 하늘 위로 아주 높이 올라오니 이제 그 아이는 보이
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는 내가 있었다.

놀이동산

가끔 어린 시절이 그리거나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 떠오르는데 그중의 하나가 놀이동산이다.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학교에서 또는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을 가 봤을 것이다. 놀러 가기 전날 설레서 잠이 안 오던 순간부터 해서 엄마가 싸준 김밥을 들고 학교에 가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 하던 순간, 동물들을 보고 놀이기구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던 순간...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제는 설레서 잠을 못 이루지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가 친구들과 함께 먹지도 않지만, 놀이동산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 이처럼 신나는 건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같다.

동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을 때 놀이동산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캠핑하며 낭만 즐겨보기



새들의 소리로 시작되는 아침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숲속에서의 캠핑해보기!

한국에서도 유행 중인 글램핑을 호주에서 경험해 보게 되었다.

도심의 소음과 탁한 공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숲속에서의 생활은 한 번쯤은 꿈꿔보지 않을까 싶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정말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우리에게 숲속에서의 캠핑은 잠시나마 꿈같은 시간을 선물해주었다.

물론 도심보다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생각했다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아침에 나를 깨우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정말이지 생각보다 시끄럽다. 이 부분은 포장을 해보려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새들의 모닝 송을 들으며 반강제적으로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갔을 때 내 눈 앞에 펼쳐진 새벽 숲속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쩌면 새들은 이 아름다운 숲속의 아침을 나에게 선물하고 싶어 새벽부터 나에게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 - 프레이저 아일랜드!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고민을 했다.
어린 시절 모래 장난을 좋아하던 나였지만 어느새 조금 커버린 터라 내
옷에 조금의 모래가 묻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기에... 그래도 사막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여행지로 결정했다.

프레이저 아일랜드에 입성한 후 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 밟았을 때의 촉감이 너무 좋아서 다시 어린이라
도 된 듯 모래 장난을 하고 눕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
면 그때 혼자서 너무 신난 게 아닌가 민망하기도 하다.

모래로 뒤덮인 그곳을 보고 있자면 뭐랄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졌다.
너무 하얀 모래는 자세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고 아름
다웠다. 모래섬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었다.



오프로드 자동차 여행!

가끔은 정해진 길이 아닌 어딘가로 달리고 싶어질 때가 있다.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누구나 다 가려는 그 길 말고 쉽게 갈 수 없고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길을 달려 보고 싶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넣은 오프로드 여행!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해변을 달리는 기분은 정말이지 최고였다.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깊은 열대우림 속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었다. 디스코 광광을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엉덩이는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할 정도로 저 오프로드 여행을 할 때가 가장 많이 잔뜩하다. 며칠 동안 험난한 길을 달리다 보면 평탄한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었다.

식상하고 평범함에 지쳐있는 그 누구라도 꼭 한 번쯤은 경험해보기 바란다. 평범함의 미학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워요!

나는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많이 쓴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

자연을 검색해 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그냥 흐르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이번 호주 여행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프레IZER 아일랜드 이곳은 자연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자연을 정의하는 대부분의 말이 맞는다 쳐도 “저절로”라는 이곳에 초점을 맞춰 자연을 안일하게만 생각해온 나 자신을 후회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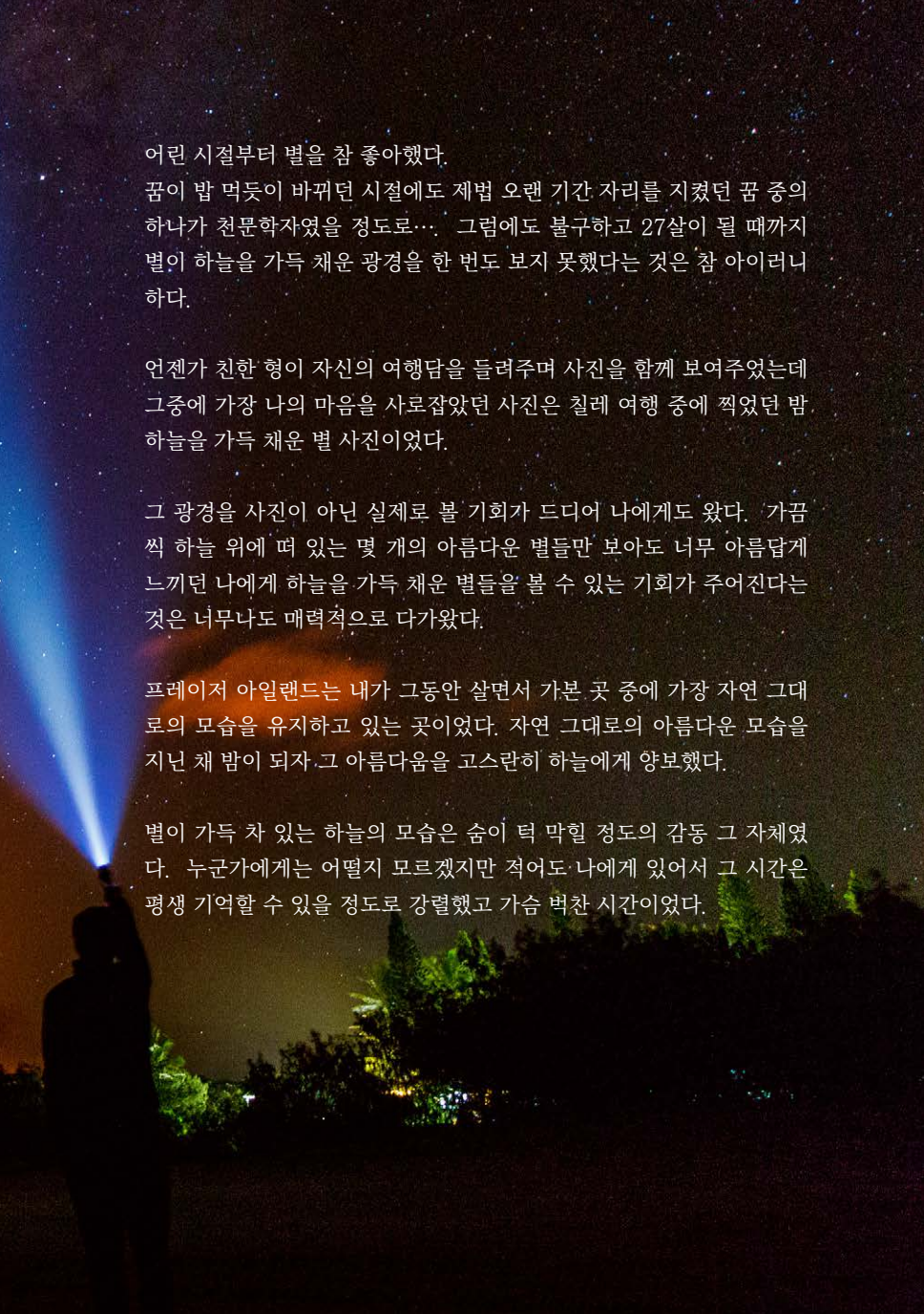
그냥 내 앞에 우뚝 솟아 있는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줄기들 그 밑으로 내려와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풀들 그 어느 하나 쉽사리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설명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살기 위해… 그 곳에 존재하기 위해… 많은 것들과 싸우며 버텨 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쓸 때 앞으로는 그 말의 무게감을 느끼며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밤하늘의 별 보러가기

쏟아질 것 같은 별하늘



어린 시절부터 별을 참 좋아했다.

꿈이 밥 먹듯이 바뀌던 시절에도 제법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켰던 꿈 중의 하나가 천문학자였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살이 될 때까지 별이 하늘을 가득 채운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언젠가 친한 형이 자신의 여행담을 들려주며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는데 그중에 가장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진은 칠레 여행 중에 찍었던 밤 하늘을 가득 채운 별 사진이었다.

그 광경을 사진이 아닌 실제로 볼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도 왔다. 가끔씩 하늘 위에 떠 있는 몇 개의 아름다운 별들만 보아도 너무 아름답게 느끼던 나에게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본 곳 중에 가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채 밤이 되자 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하늘에게 양보했다.

별이 가득 차 있는 하늘의 모습은 숨이 턱 막힐 정도의 감동 그 자체였다. 누군가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평생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고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한다.
하지만 끝은 끝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두기보단 끝으로 두는 스타일이다.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아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며 정리해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는 보름 동안의 호주 여행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는 지금 이 순간 그동안의 마무리와는 조금 다른 이유는 왜일까. 처음으로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아쉬움이란 감정은 다음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아쉬움이 없었다.



이번 여행이 유독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처음으로 한 버킷리스트 여행에서 모든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되어서 그런듯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적어보고 하나하나씩 이루고 나니 그에 따른 아쉬움이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나의 여행과는 정말 달랐지만 성공적이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짜보는 게 어떨까? 그걸 모두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걱정하지 말고 말이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하면 되고 모두 성공했다면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된다. 여행이란 그 자체를 나의 버킷리스트 o순위로 두고 나머지 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면 여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나의 첫 버킷리스트 여행 ~!!

그 첫 단추가 퀴즈랜드여서 좋았고 퀴즈랜드여서 모두 이룰 수 있었다. 다양한 모습을 선물해준 퀴즈랜드, 다양한 도전을 허락해준 퀴즈랜드. 퀴즈랜드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평생 기억하는 것으로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다.









#QUEENSLAND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로 늘 선정되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케언즈,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 프레이저 아일랜드,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골드코스트,
도시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브리즈번까지
호주 퀸즈랜드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여행을 만날 수 있다.



케언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밀턴 아일랜드

윌선데이 아일랜드

프레이저 아일랜드

선샤인코스트

브리즈번

모튼 아일랜드

골드코스트

케언즈

Cairns





호주 퀸즈랜드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휴양지, 케언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상적인 산호 군락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열대 우림, 그리고 협곡이 있어 래프팅으로도 인기 만점이고, 하늘을 나는 열기구와 스카이다이빙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적한 시골 마을임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케언즈의 매력에 빠져보자!

에스플라나드 라군

Esplanade Lagoon



케언즈 근처에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환상적인 바다가 있지만, 정작 케언즈 시티의 바다는 갯벌 같아서 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인공 수영장인 에스플라나드 라군을 조성해 두었다.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도 있어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바비큐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케언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 52-54 Esplanade, Cairns City QLD 4870 ☎ +61 7 4044 3715

🕒 09:00-21:00 (Wed 12:00~21:00) 🆓 무료

나이트 마켓

Night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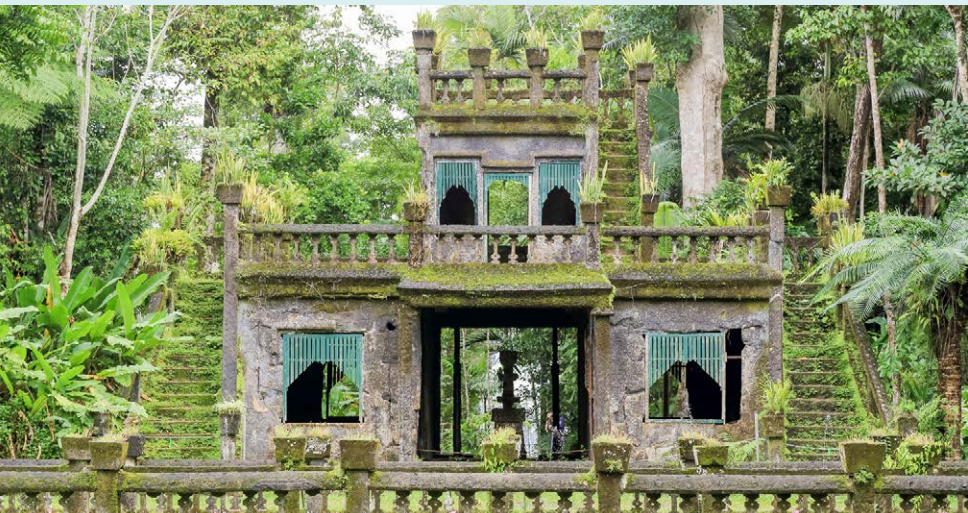


메인 거리인 에스프라네이드 거리 근처에 있는 나이트 마켓은 케언즈의 작은 쇼핑몰이다. 마켓 내에는 맛집부터 기념품샵, 마사지샵 등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의 상점은 오후 4시 30분~밤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시내의 다른 상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념품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애보리지널 아트 상품들과 호주 기념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한번 찾아보자!

📍 54/60 Abbott St, Cairns City QLD 4870 ☎ +61 7 4051 7666

🕒 11:00-23:00 ⋯ 상점은 16:30부터 대부분 영업을 시작한다.

파로넬라 파크



케언즈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파로넬라 파크는 스페인 출신의 이민자였던 호세 파로넬라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정원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을 갖는 것이 꿈이었던 호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곳의 미나 폭포를 보는 순간 자신의 꿈을 이룰 곳이 바로 여기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머릿속의 구조도만으로 건설해나간 성과 정원은 1935년에 완성이 되었다.

내부는 투어로 둘러볼 수 있는데, 47개의 대계단을 내려가면 파로넬라 파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이 나온다. 이 성은 영화 상영을 하기도 했고, 카페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1979년 대화재와 1986년 사이클론, 1994년 홍수 등으로 지금은 뼈대만 남아 있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오히려 오래된 신비로운 동화 속 성 같은 느낌이 들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으며, 결혼식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Café China

중국 요리

케언즈 대표 식당으로 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북경 요리와 광둥 요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중국 요리 전문점으로, 100여 가지가 넘는 요리가 있으며 맛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Main Foyer, the Reef Hotel Casino
-  +61 7 4041 2828
-  11:00~14:30 / 17:00~21:30



Ochre Restaurant

호주 요리

케언즈 레스토랑 중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오랫동안 받은 이곳은, 캥거루, 악어, 에뮤 등의 다양하고 모던한 호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  6/1 Marlin Parade Cairns QLD 4870
-  +61 7 4051 0100
-  11:30~15:00 / 17:30~21:30
-  Bar Snacks 15:00~17:30



Novotel Cairns Oasis Resort

리조트

케언즈 시내 중심에 위치한 노보텔 리조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4성급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피트니스 센터나 야외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여행자의 편의를 돕는다.

-  122 Lake St, Cairns City QLD 4870
-  +61 7 4080 1888
-  www.novotelcairnsresort.com.au

쿠란다 마을

Kuranda Village





케언즈 도심에서 가까운 쿠란다 마을은 세계 자연유산인 열대우림을 만날 수 있다.

쿠란다 마을까지 가는 방법은 쿠란다 시닉 레일을 이용하는 방법과 스카이레일 케이블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쿠란다 관광열차를 이용해 레인포레스테이션까지 이동 후, 마을을 여행한 후 다시 돌아올 때는 케이블웨이를 이용하게 된다. 원주민과 호주의 동물, 그리고 열대우림까지 만날 수 있는 쿠란다 마을에서 호주의 문화를 배우고, 자연을 느끼며, 정글을 탐험해 볼 수 있다.

쿠란다 시닉 레일

Kuranda Scenic Railway



1891년부터 운영된 쿠란다 시닉 레일은 원래는 노동자들이 쿠란다 마을로 가는 이동 수단이거나 광물이나 목재 등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관광열차로 바뀌어서 운행된다. 케언즈에서 쿠란다 마을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15개의 터널을 지나 도착하게 되는데, 마지막 배런 폭포 역에서는 약 10분 정도 정차하는 동안 잠시 내려 배런 협곡을 감상할 수 있다.

📍 126-144 Bunda St, Cairns City QLD 4870 ☎ +61 7 4036 9333

🕒 08:30-17:15 🌐 www.ksr.com.au

스카이레일 레인포레스트 케이블웨이

Skyrail Rainforest Cableway



케언즈에서 쿠란다를 왕복하는 스카이레일 케이블카는 약 7.5km 구간을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다. 스카이레일의 7.5km 구간을 이동하는 데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동하는 동안 지나게 되는 레드 피크 (Red Peak) 역과 배런 폭포 (Barron Fall) 역에서 하차해 산책로를 따라 열대 우림 속 풍경을 둘러볼 수 있다.

📍 6 Skyrail Drive, Smithfield QLD 4878 ☎ +61 7 4038 5555

🕒 09:00-17:15 🌐 www.skyrail.com.au

레인포레스테이션 네이처 파크

Rainforestation Nature Park



쿠란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레인포레스테이션 국립공원에서는 세 가지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다. 수륙양용차인 아미덕을 타고 약 20분간 열대우림을 둘러볼 수 있고, 와일드라이프 공원에서 코알라와 캥거루, 작은 악어들을 만날 수 있으며, 원주민 쇼를 볼 수 있고, 또한 전통적인 현지식 바비큐 뷔페 점심을 먹을 수 있다.

📍 1030 Kennedy Hwy, Kuranda QLD 4881

☎ +61 7 4093 9033 ⌚ 09:00-16:00

🌐 www.rainforest.com.au



호주에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인 25,000~4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호주 원주민, 즉 애버리진 (Australian Aborigine)이라고 부른다. 호주 원주민은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엔 주로 해안 지역에 집중해서 살고 있었지만, 백인들에 의해 거주지를 빼앗기면서 내륙의 사막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당시에 많은 인종 차별 등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원주민들 역시 호주의 시민 자격도 주어졌고, 정부의 보호 아래 노동하거나 보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애보리지널 아트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의 그림으로 만든 기념품들을 호주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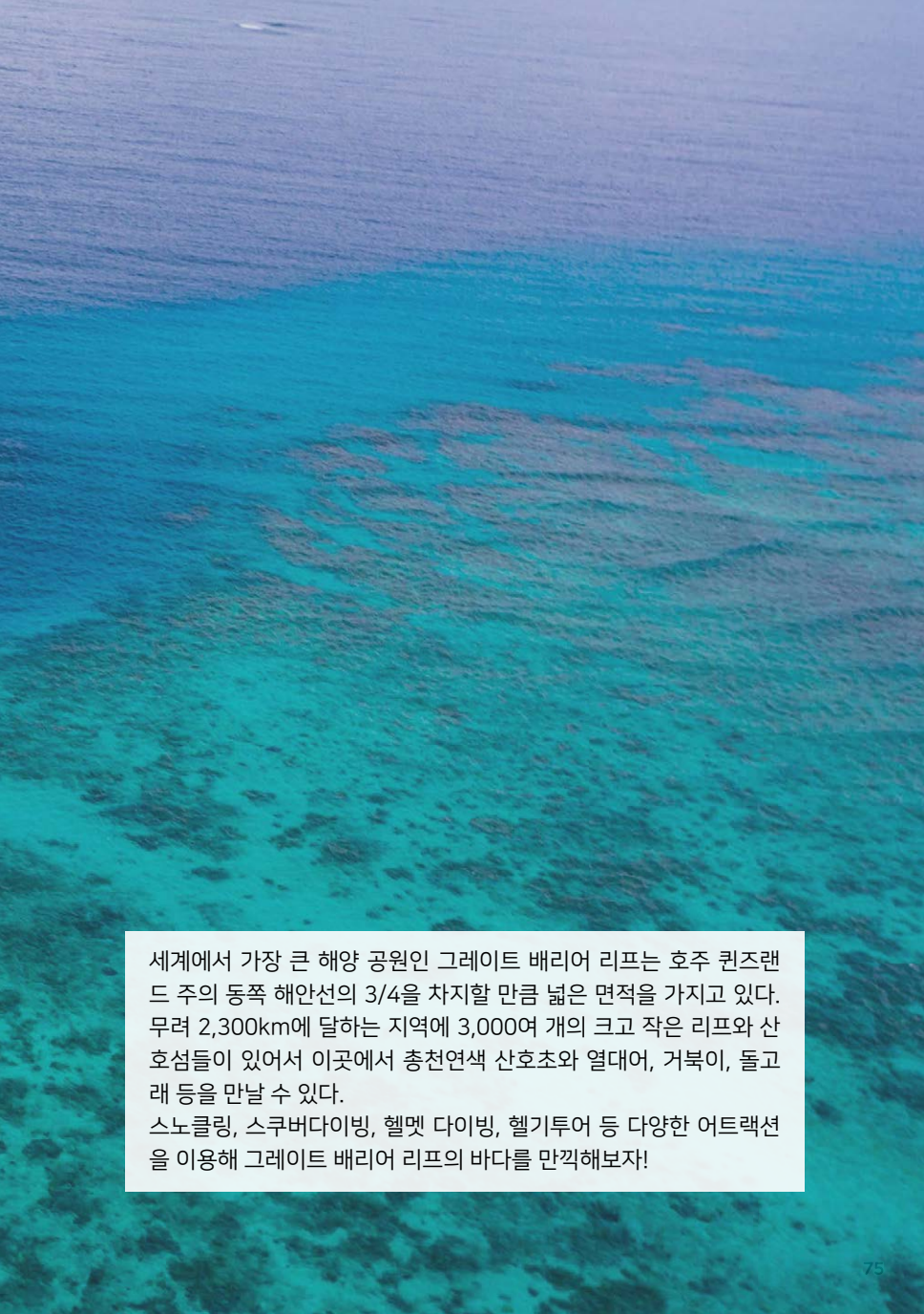
원주민들이 쇼할 때 관객들이 무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목당하면 올라가서 춤을 함께 춰야 한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나름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Great Barrier Reef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공원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호주 퀸즈랜드 주의 동쪽 해안선의 3/4을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무려 2,300km에 달하는 지역에 3,000여 개의 크고 작은 리프와 산호섬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총천연색 산호초와 열대어, 거북이, 돌고래 등을 만날 수 있다.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헬멧 다이빙, 헬기투어 등 다양한 어트랙션을 이용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바다를 만끽해보자!



Let's GO!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크루즈

Great Barrier Reef Cruise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는 여러 크루즈 회사들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케언즈의 크루즈 선착장 (Reef Fleet Terminal)에서 출발하는 여러 투어 회사들의 크루즈가 액티비티를 위해 미리 마련된 플랫폼으로 향한다.

케언즈를 출발해 플랫폼에 도착하면, 약 5시간 정도 주어진 자유시간 동안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반잠수함, 헬멧 다이빙, 헬리콥터 투어 등을 할 수 있다. 여러 투어 회사의 크루즈 별로 가능한 투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은 가능하다.

→ 리프 매직 크루즈 Reef Magic Cruises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체험 다이빙, 자격증 소지자 다이빙), 반잠수정, 유리 바닥 보트 투어, 헬기투어, 씨볼, 헬멧 다이빙 등 www.reefmagiccruises.com

→ 선러버 크루즈 Sunlover Reef Cruises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체험 다이빙, 자격증 소지자 다이빙), 씨워커 헬멧 다이빙, 헬기투어 등 www.sunlover.com.au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200% 즐기기



호주 북동쪽 해안가, 길이 약 2,300km, 면적 20만 7,000km에 너비가 약 500~2,000m의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역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다양한 산호와 어류, 연체동물들이 살고 있어, 바닷속 탐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여행지다.

그래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제대로 즐기려면 바닷속을 탐험해보길 추천한다. 열대 바닷속,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는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듀공이나 초록 거북을 볼 수 있고, 니모를 찾아서에 나왔던 크라운 물고기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가기 전, 가장 궁금했던 씨불! 씨불을 타고 물속을 달리는 경험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스노클링
헬기투어



스쿠버다이빙
씨봄



▶ **스노클링** : 간단한 장비만으로 수중 속을 들여다보는 레저 스포츠다.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멍조끼를 입고 안전바나 가벼운 튜브를 이용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스쿠버 다이빙** :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물속 깊이 잠수하는 레저 스포츠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야 하지만, 초보자들을 위해 전문 다이버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씨봄** : 영화 007시리즈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바다 오토바이인 씨봄은 바다 위에서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

▶ **헬기투어** : 수정같이 맑은 바다 덕분에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산호초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아름답다. 약 10분 정도 헬기를 타고 산호초 바다의 멋진 풍경에 매료되어 보자.

해밀턴 아일랜드

Hamilton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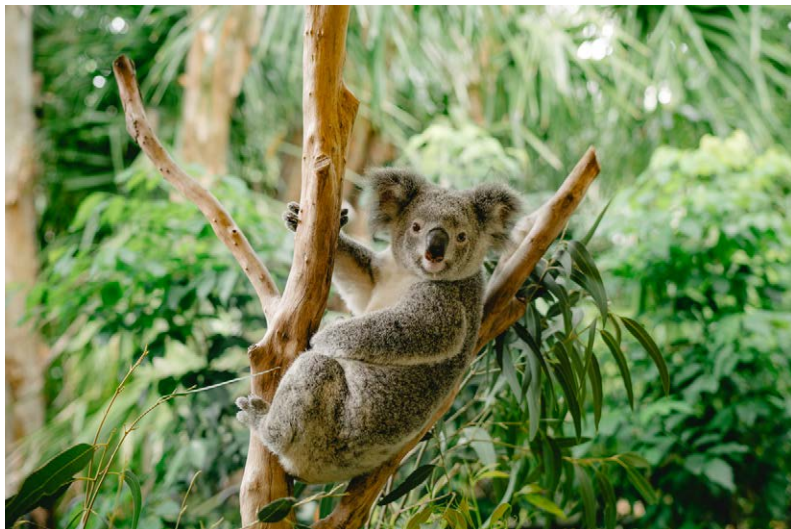


신혼여행이나 럭셔리 여행으로 퀸즈랜드를 선택했다면, 해밀턴 아일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섬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중심에 있고, 아름다운 산호초와 섬들이 있는 횡선데이 제도에 있어, 호주인들에게 신혼여행지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럭셔리 휴양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섬 안에 공항이 있어서 호주 주요 도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기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여행할 수 있다.



해밀턴 아일랜드는 핏선데이 제도를 이루는 74개의 섬 중의 하나이며, 초호화 휴양 리조트로 이루어진 섬이다. 그래서 특히 호주의 신혼여행지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데,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호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호주 여행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곳이기도 하다. 연중 온화한 날씨 아래, 섬 안의 럭셔리 리조트에서 무공해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노라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느껴진다.

해밀턴 아일랜드는 크지 않은 섬이긴 하지만, 섬 안에는 리조트 외에도 여행자 편의에 맞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우체국이나 학교, 교회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각종 크루즈나 헬기 등을 이용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가장 로맨틱한 섬으로 알려진 하프 리프를 여행하거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불리는 화이트 해븐 비치도 여행할 수 있다.



원 트리 힐

1

One tree Hill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멋진 풍경 뷰를 보고 싶다면 원 트리 힐에 오르면 된다.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 너머로 마리나 부두와 캐츠 아이 해변이 내려다보이고, 탁 트인 바다 전망이 펼쳐진다. 특히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기에, 해 질 녘에 올라가면 더 좋다.

와일드 라이프

2

Wild Life

해밀턴 아일랜드의 특별한 곳 중에서는 코알라를 보며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와일드 라이프도 놓칠 수 없다. 숲 속의 작은 동물원인 와일드 라이프에서 호주의 동물인 코알라와 캥거루, 악어 등을 만날 수 있는데, 시간대별로 코알라, 덩고, 뱀 등과 함께 기념촬영도 가능하며, 밤에 바비큐와 함께 동물들을 만나는 시간도 인기가 높다.

화이트 해븐 비치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화이트 해븐 비치는 약 7km 길게 뻗어 있는 새하얀 모래사장이 있다. 하얀 백사장엔 에메랄드빛 바다까지 더해져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데, 아무런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은 덕에 더욱 청정함이 느껴진다.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화이트 해븐 비치까지는 크루즈를 이용해 쉽게 갈 수 있으며 주로 오전과 오후에 출발하는 반나절 투어를 이용하게 된다. 반나절 투어는 해변에 도착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 동안 해변을 충분히 즐기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화이트 해븐 비치를 조금 더 자세히 즐기고 싶다면, 해변뿐 아니라 힐 잇렛 & 전망대를 함께 둘러보는 일일 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화이트 해븐 모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 하얀 모래는 98%가 유리나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인 규토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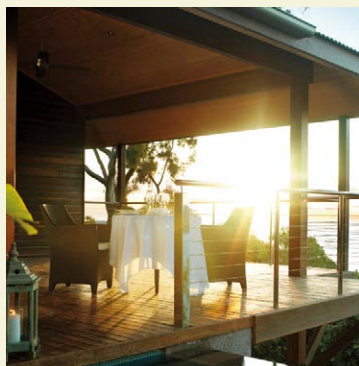


Reef View Hotel

리조트

해밀턴 아일랜드의 리조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 캐츠아이 해변에 있고 투숙객이면 스노클링,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 12 Resort Dr, Hamilton Island QLD
- ☎ +61 7 4946 9999
- 🌐 hamiltonisland.com.au



Qualia

리조트

호주의 유일한 6성급 리조트로, 럭셔리한 여행에 적합한 곳이다. 고급 레스토랑과 스파가 있고, 투숙객 전용 프리미엄 투어 프로그램도 꽤 많다. 위치는 섬의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다.

- 📍 20 Whitsunday Blvd
- ☎ +61 1300 780 959
- 🌐 qualia.com.au



Bob's Bakery

베이커리

1983년부터 운영한 30년 전통의 베이커리로, 랩 샌드위치와 고메 파니니는 물론 파이와 케이크 등이 유명하다. 마리나 빌리지에 있다.

- 📍 137 Front St, Hamilton Island QLD 4803
- ☎ +61 7 4946 8281
- 🕒 07:00 - 16:00
- 🌐 hamiltonisland.com.au

프레이저 아일랜드

Fraser Island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섬인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원주민들이 K'gari (천국)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지상 낙원과 같다. 최대 길이 122km의 긴 모래 섬에 모래 해안, 습지뿐 아니라 아열대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공해와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이기에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모험을 좋아한다면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

1

레드 캐니언

Red Canyon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가진 레드 캐니언은 말 그대로 붉은색 협곡이다. 해변가에서 산책로를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붉은색 사암으로 만들어진 작은 협곡을 만나게 된다. 바다 전망도 아름답다.

2

일라이 크릭

Eli Creek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일라이 크릭은 100년 전에 내렸던 비가 모래를 통과해 흘러 나온 물로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 물길 옆의 나무 데크를 따라 안쪽 끝까지 걸어간 후, 계단을 내려가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 걸어 나오거나 튜브 등을 이용해 수영을 즐겨도 좋다.

와비 호수

3

Lake Wabby

입구에서부터 약 4~50분 정도 걸어가면 넓게 펼쳐진 모래사막이 나오고, 모래사막 안쪽으로, 와비 호수가 있다. 호수 주변이 티트리 나무로 되어 있어 티트리 성분이 물속에 녹아들어 있기에 피부에 물이 닿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와비 호수에서 꼭 수영을 즐겨보자!



마헤노 난파선

4

Maheno Shipwreck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수많은 난파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배는 1935년 하이베이 근처를 지나다 사이클론을 만나 좌초되어서 이곳에 남겨졌으며, 1차 세계대전 때 병원선으로 이용되던 배였다고 한다.

5

인디언 헤드

Indian Head



멀리서 보면 튀어나온 언덕의 모습이 인디언 추장의 머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인디언 헤드라고 불리는 곳이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멋진 바다와 함께 때론 고래도 볼 수 있다.

6

샴페인 풀

Champagne Pool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마치 '샴페인' 같다고 해서 샴페인 풀이라고 불리는 데, 잔잔한 풀장에서 갯바위에 부딪히는 자잘한 소리를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거친 바다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파일 밸리

7

Pile Valley



모래 언덕 위의 열대 우림. 열대 우림 속의 계곡물은 모래 위를 흐르기 때문에 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고요하다. 천년이 넘는 거목들로 울창한 열대우림 속을 산책로를 따라 탐험해보자.

맥캔지 호수 & 비라빈 호수

8

Lake McKenzie & Lake Burrabeen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열대 우림 속에는 여러 호수가 있는데, 맥캔지 호수나 비라빈 호수 등이다. 하얀 모래와 맑은 물로 이루어진 호수에서의 수영을 즐겨보자!

사률푼동 버스 투어



브리즈번, 선샤인코스트, 허비 베이 등에서 출발하는 투어, 혹은 섬 내의 리조트의 투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섬을 여행할 때 사률푼동 버스를 이용한다. 섬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듬어지지 않은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로 여행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길을 사률푼동차로 달려보는 것만으로 이미 이 섬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투어는 1Day 투어부터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는 1박 이상의 투어에 참여하는 걸 추천한다.



프레이저 투어회사

Australian Sunset Safaris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투어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당일투어부터 1박 이상 투어도 가능하다.



프레이저 아일랜드에는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데, 특히 호주에서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딩고가 살고 있다. 딩고는 늑대와 개 사이의 동물로 호주의 들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주민과 함께 살 때는 딩고는 애완용으로 키워졌지만 원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남겨진 후 야생 환경 속에 살게 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야생동물이 되었다.

딩고는 육식 동물로 호주의 많은 동물을 습격하는 최상위 포식자지만 개들과 교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가고 있다. 호주에선 오직 이곳 프레이저 아일랜드에만 개가 살고 있지 않아 여전히 순수 혈통의 딩고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섬에는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또한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 법에 따라 딩고를 건들거나 먹이를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딩고가 사람을 공격할 일은 거의 없지만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이기에 만약을 대비해 딩고를 조심해야 하며, 혼자나 소규모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딩고 스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만약 딩고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가볍게 지나치면 된다.

선샤인코스트

Sunshine Coast





칼론드라부터 레인보우 비치까지 약 56km에 이르는 해변 지역인 선샤인코스트는 여행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골드코스트에 비해 덜 복잡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해변이 이어져 있다.

연중 내내 따뜻한 기온과 서핑을 즐기기에 적당한 파도, 그리고 국립공원과 동물원, 테마파크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물룰라바와 누사 비치를 중심으로 여행 일정을 잡아보자. 여유를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다.



1 레인보우 비치

Rainbow Beach

프레이저 아일랜드 근처에 있어서 프레이저 아일랜드로 가기 위한 관문이 되는 해변으로, 여러 색이 있는 모래 절벽 덕에 레인보우 비치라고 불린다. 모래 언덕이 무지갯빛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래에 관한 다양한 전설들이 전해온다.

2 누사 비치

Noosa Beach

호주에서 가장 맑은 바다 중 한 곳인 누사 비치는 선샤인코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누사 비치 옆엔 누사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산책로를 따라 헬게이트(Hell's Gate)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멋진 풍경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룰라바 비치

3

Mooloolaba Beach

선샤인코스트의 대표적인 해변인 물룰라바 역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곳은 아이들이 놀기나 해수욕을 즐기거나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해변이지만, 상점들이 바닷가를 따라 들어서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서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칼룬드라 킹스 비치

4

Kings Beach

선샤인코스트 남쪽 끝에 위치한 칼룬드라 7개의 해변이 있으며, 킹스 비치는 전망을 보기 좋은 곳도 있고, 분수 공원과 안전요원이 있는 수영장이 있어서 가장 인기가 높다. 복잡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곳에서 휴가와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호주 동물원

Australia Zoo



퀸즈랜드를 대표하는 동물원으로, 호주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자 '악어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스티브 어윈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이곳에는 악어, 코끼리, 치타, 호랑이 등 약 2,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풀어놓은 야생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먹이도 줄 수 있다.

📍 1638 Steve Irwin Way, Beerwah QLD 4519 ☎ +61 7 5436 2000

🕒 09:00-17:00 🌐 www.australiazoo.com.au

오지 월드

Aussi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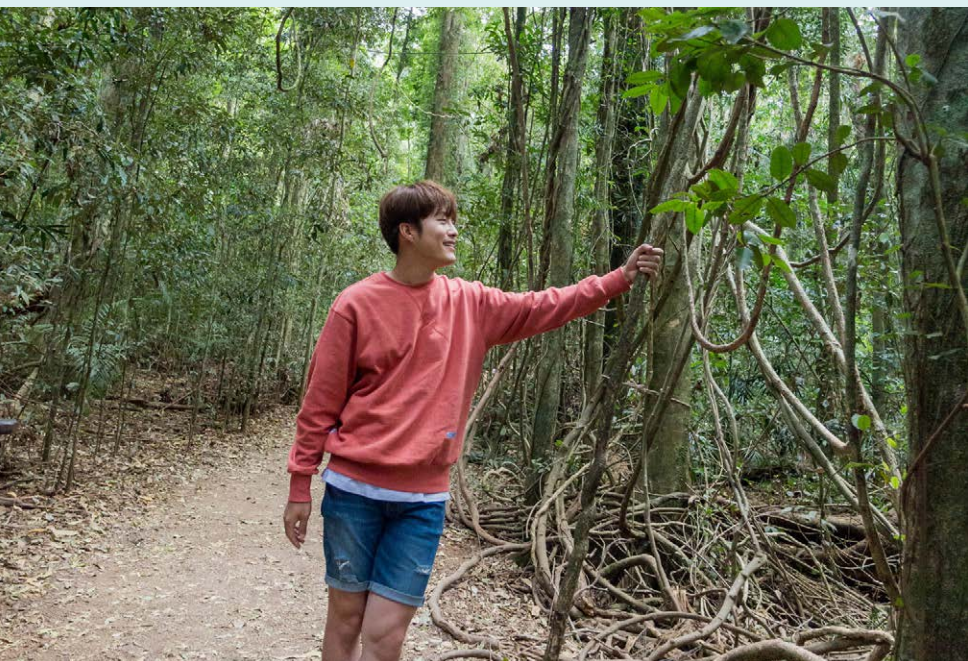


호주를 호주식으로 오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지 테마파크의 이름 역시 호주식 테마파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담한 크기의 테마파크 내의 시설들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로 꾸며져 있는 것 같지만, 어른들에게는 오히려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매력이 넘쳐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즐겨 찾는다.

📍 73 Frizzo Rd, Palmview QLD 4553 ☎ +61 7 5494 5444

🕒 10:00-17:00 🌐 www.aussieworld.com.au

말레니



말레니는 글래스하우스 산맥이 내려다보이는 호주의 전통 전원 마을이다. 마을 주변으로 열대 우림과 아름다운 폭포들이 많은 국립 공원들이 있고, 작은 카페, 상점 등이 모여 있는 거리가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전원 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말레니 마을의 메인 스트리트인 메이플 스트리트를 거닐며 커피와 디저트를 먹거나, 보타닉가든을 찾아 아름다운 정원과 새들과 친구가 되어 보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고 좋았던 말레니 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았지만, 맛집도 많다는 사실!
브루하하 맥주 양조장에서 먹는 수제 맥주와 스테이크는 정말 강력추천이다!



Brouhaha Brewery

맥주 양조장

브루하하 맥주 양조장은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뿐 아니라 맥주를 만들고 남은 맥아를 먹인 소고기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6/39 Coral Street, Maleny, Qld, 4552
-  +61 7 5435 2018
-  Wed-Sun 11:00~late
-  brouhahabrewery.com.au



Maleny Food Co

젤라또 & 카페

말레니 마을의 중심 거리인 메이플 스트리트 중심에 위치한 카페로, 호주에서 가장 맛있는 젤라또로 꽤 많은 상을 받은 가게로 유명하다.

-  37 Maple St, Maleny, QLD, 4552
-  +61 7 5494 2860
-  Mon~Fri 08:00~16:30 Sat, Sun ~16:00
-  www.malenyfoodco.com



Pallet Life Gallery & Cafe

갤러리 &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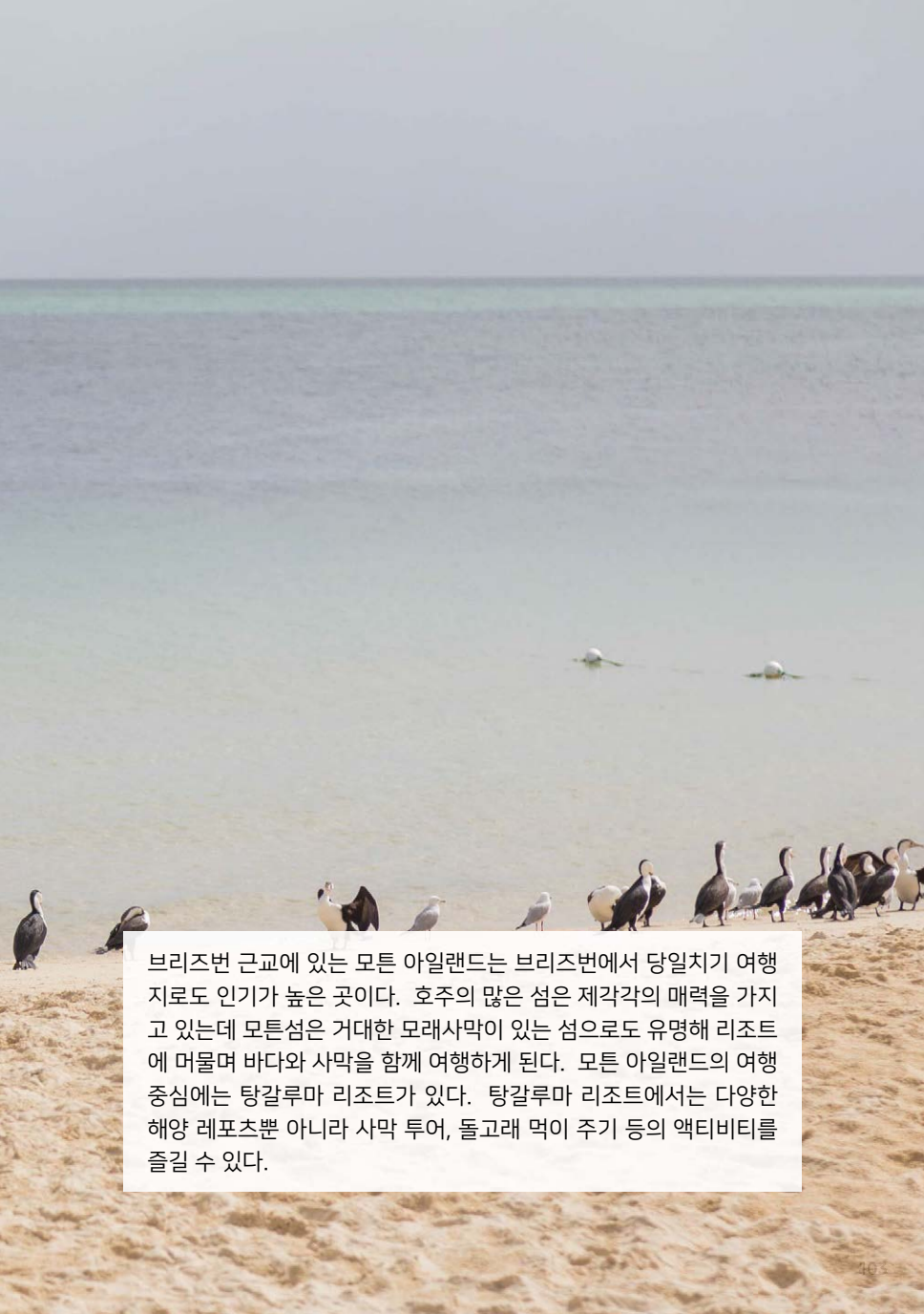
말레니 메인 스트리트 한쪽에 자리 잡은 앤틱 카페로, 금~일요일만 영업하지만 작은 공연장도 있어 가끔 라이브 공연을 들을 수 있으며, 내부에는 골동품 상점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  38 Maple St, Maleny QLD 4552
-  +61 412 910 051
-  Fri-Sun 09:00-16:00

모튼 아일랜드

Moreton Island





브리즈번 근교에 있는 모튼 아일랜드는 브리즈번에서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호주의 많은 섬은 제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튼섬은 거대한 모래사막이 있는 섬으로도 유명해 리조트에 머물며 바다와 사막을 함께 여행하게 된다. 모튼 아일랜드의 여행 중심에는 탕갈루마 리조트가 있다. 탕갈루마 리조트에서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뿐 아니라 사막 투어, 돌고래 먹이 주기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Resort

탕갈루마 리조트

Tangalooma Island Resort

모든 아일랜드 중심에 있는 탕갈루마 리조트는 럭셔리한 스위트룸부터 일반 객실, 방갈로 등 다양한 숙박 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레포츠뿐 아니라 사막 사파리 등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특히나 야생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은 오직 탕갈루마 리조트에서만 가능하고, 사막이 있는 곳이기에 사막에서 샌딩 보드를 탈 수도 있다.

섬의 유일한 리조트에 머물며 모든 아일랜드의 매력에 빠져보자!

탕갈루마 리조트 가는 법

브리즈번 Pinkenba 선착장에서 페리로 약 1시간 15분, 페리는 하루에 3~4회 정도 운행하며, 당일치기 여행부터 1박 이상의 여행 등 다양한 옵션으로 여행할 수 있다.

*** www.tangalooma.com

모든 아일랜드 200% 즐기기



▶ 모래 썰매 :

사막을 사륜구동차를 타고 달려 도착한 가장 가파르고 긴 모래 언덕 위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샌딩보드는 절대 놓치지 말자!

▶ 쿼드 바이크 :

탕갈루마 리조트의 숲과 사막을 지나 해변까지 사막 오토바이 ATV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약 1시간가량 다양한 자연 속을 달려볼 수 있다.



짧은 순간 빠른 보딩을 위해서 모래사막을 힘겹게 올라야 했기에, 여러 번 연속해서 썰매를 탈 수가 없었지만, 사막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기쁨은 정말 최고였다!



쿼드바이크
워터스포츠



모래썰매
돌고래먹이주기



▶ 워터 액티비티 :

탕갈루마의 거대한 난파선 주변에서의 스노클링이나, 카약,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등 다양한 익사이팅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고래를 볼 수 있는 시기엔 고래 관찰 크루즈를 통해 섬 주변의 고래를 만날 수도 있다.

▶ 돌고래 먹이 주기 :

다친 돌고래들을 치료하고 먹이를 주던 것이 유래가 되어 시작된 돌고래 먹이 주기는 오후 6시경마다 리조트 인근으로 찾아오는 야생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바다에서 사는 돌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브리즈번

Brisbane





퀸즈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은 시드니, 멜버른에 이어 호주에서 3 번째 도시로 손꼽힌다.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를 유지하고 있어 따뜻한 곳이고, 도시이지만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곳이라, 여행도 좋지만 살기엔 더 좋은 곳이다. 그래서 많은 워홀러와 유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맛과 쇼핑, 문화, 예술, 휴식과 관광까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머물수록 그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시티홀

City Hall



브리즈번의 상징이면서 도심 중앙에 있는 시티홀은 내부에 미술관, 박물관, 시계탑을 비롯해 카페 등도 들어서 있다. 브리즈번의 역사를 보여주는 브리즈번 박물관과 상설 전시를 하는 미술관, 그리고 시계탑에 오를 수 있어 브리즈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시티홀 건물은 1920년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지어졌다.

📍 64 Adelaide St, Brisbane City QLD 4000 📞 +61 7 3403 8888
 ⌚ 08:00-17:00 (sat,sun 08:00~17:00) 🆓 무료 투어프로그램도 운영함

퀸스트리트

Queen Street



브리즈번 여행의 중심 거리인 퀸 스트리트는 브리즈번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 중 하나다. 도보로만 다닐 수 있는 이 거리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 있는데, 백화점이나 기념품샵, 각종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거리 끝에는 19세기 재무부 청사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카지노가 된 콘래드 트레저리 카지노도 있다.

📍 Queen Street, Brisbane City QLD 4000

... 브리즈번 인포메이션 센터도 거리 중앙에 위치한다.

굿월 브리지

Goodwill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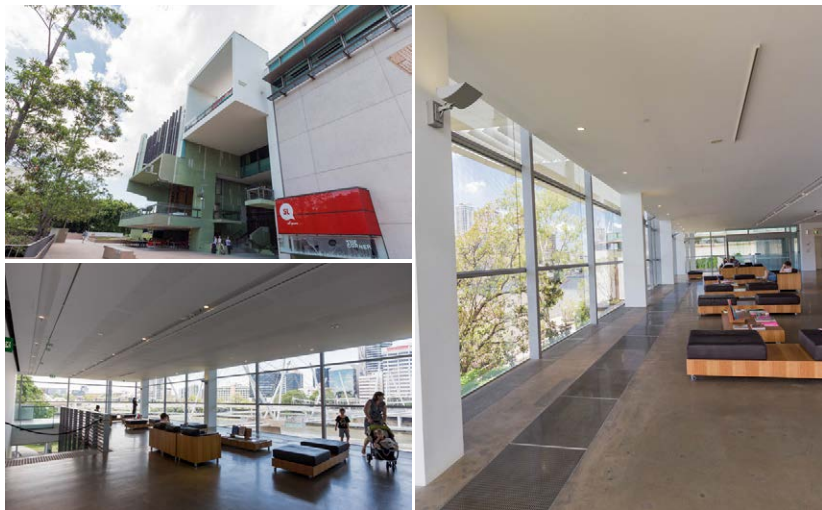


브리즈번 강변에는 여러 다리들이 양쪽 지역을 연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다리가 바로 굿월 브리지인데, 이 다리는 보타닉가든과 사우스뱅크를 연결해준다. 자동차는 지나다니지 않는 자전거와 도보로만 건널 수 있는 다리다.

 Goodwill Bridge, South Brisbane QLD 4101

고마 미술관

Gallery of Modern Art



호주에서 예술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브리즈번답게 고마 미술관은 호주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관으로 손꼽을 수 있다. 설치 미술과 회화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현대 미술들을 보여주고, 상설 전시 등을 통해 테마 전시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시도 좋지만, 위층의 강변 뷰 전망이 보이는 통유리 휴식 공간에서 바라보는 브리즈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 Stanley Pl, South Brisbane QLD 4101 📞 +61 7 3840 7303

🕒 10:00-17:00 🌐 www.qagoma.qld.gov.au

브리즈번 휠

The Wheel of Brisbane



브리즈번의 강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브리즈번 휠은 대관람차로서 천천히 도는 동안 브리즈번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조명 덕분에 더 아름답게 브리즈번 강의 야경을 수놓는 중심이 된다. 멀리서 브리즈번 휠을 바라보는 것과 관람차 안에서 브리즈번 시티를 바라보는 것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느껴보자.

📍 Russel Street, South Brisbane QLD 4101 ☎ +61 7 3844 3464
 ⌚ 10:00-22:00 (sat, sun ~23:00) 🌐 www.thewheelofbrisbane.com.au

스트리트 비치

Street Beach



브리즈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으로,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간이다. 바다처럼 고운 모래가 깔린 인공 비치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일 년 내내 일광욕과 수영을 즐긴다. 바로 옆에는 샤워실도 있으며 바비큐장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Stanley Street Plaza, Brisbane City, QLD 4101

☎ +61 7 3156 6366 ... 무료

스토리 브리지

Story Bridge



브리즈번 강의 가장 대표적인 다리로, 포트튜브밸리와 캔거루 포인트를 연결하는 도로 중 일부이며, 1940년에 개통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브리즈번 강의 아름다운 풍경 일부로 사랑받는데 특히 야경엔 멋진 조명과 함께 더욱 빛을 발한다. 2005년부터는 다리를 등반하는 클라이밍이 시작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 State Route 15, New Farm QLD 4169 ☎ +61 1300 254 627

🕒 클라이밍 06:00-10:00 🌐 www.sbac.net.au

제임스 스트리트

James Str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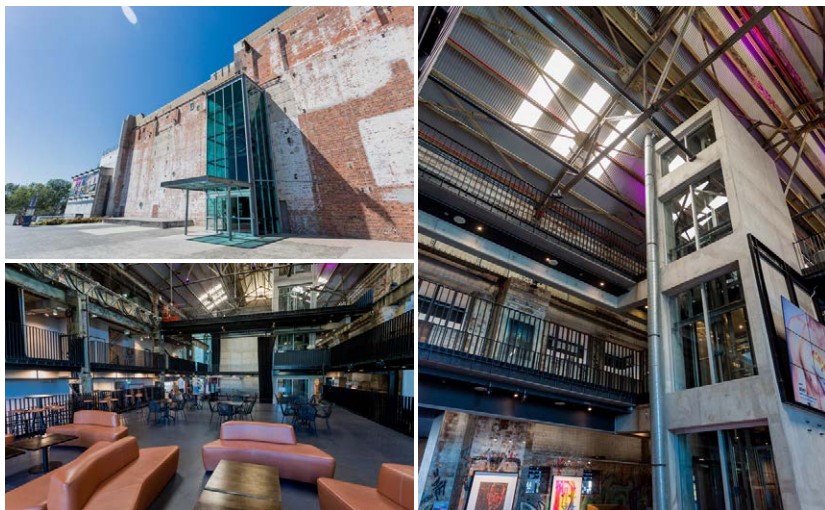
포티튜드 밸리 지역의 핫한 거리 제임스 스트리트는 서울의 가로수길 같은 곳이다.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 마켓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오가닉 마켓 제임스 스트리트 마켓은 주로 오가닉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 James Street, New Farm, Brisbane, QLD 4006

☎ +61 7 3850 0111 🌐 www.jamesst.com.au

파워하우스

Power House



브리즈번의 뉴팜 지역을 대표하는 파워하우스는 원래 발전소였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다. 카페와 레스토랑은 물론, 전시 공간과 무대, 공연장 등이 있어 수준 높은 세미나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대부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119 Lamington St, New Farm QLD 4005 📞 +61 7 3358 8600
 🕒 Mon-Fri 09:00-17:00 (Sat 12:00~16:00) 🌐 brisbanepowerhouse.org

잇 스트리트 마켓

Eat Street Market



금, 토, 일만 운영하는 브리즈번 최고의 야시장으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푸드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솜사탕과 같은 간식과 와플, 케이크 등 디저트도 있고 맥주도 마실 수 있다. 중앙에는 무대가 있어서 라이브 공연과 함께하면 더욱 야시장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 221D MacArthur Ave, Hamilton QLD 4007 ☎ +61 1300 328 787

🕒 Fri, Sat 16:00-22:00 Sun 11:00~20:00 🌐 eatstreetmarkets.com

브리즈번 그리터스



브리즈번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리터스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다. 브리즈번에서 오래 거주한 토박이 자원봉사자들이 골목골목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기에 그만큼 브리즈번의 구석구석을 더 많이 알게 된다. 투어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하며, 매일 아침 시청에서 출발하는 '그리터스 초이스'를 통해 일정한 루트를 여행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루트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유어 초이스'도 신청할 수 있다.

... 예약 : www.visitbrisbane.com.au/brisbane-greeters



현지 자원봉사자 분들은 브리즈번에 대한 사랑이 참 대단했다. 곳곳에 숨은 명소들을 돌아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



브리즈번 시티에서 운영하는 시티 사이클은 시내 곳곳의 150개 이상의 자전거 정류장 비치된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한 후, 가까운 정류장에 반납하면 되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다. 30분 이하 이용은 무료이고,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는데, 31분~60분이면 2달러, 이후에는 30분마다 5달러씩 추가된다.

이용 전 미리 온라인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해야 하며, 이용 후 반납 시 자전거 정류장에 주차 공간 여유가 없다면 반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앱을 통해 자전거 주차 현황을 확인하자.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브리즈번 시내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기대 이상으로 자전거 상태도 너무 좋아서 집으로 그대로 타고 오고 싶었을 정도!!



Gerard's Bistro

퓨전 레스토랑

제임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모던한 인테리어의 레스토랑으로 브리즈번 3대 맛집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퓨전 레스토랑이다.

📍 14/15 James St, Fortitude Valley QLD

☎ +61 7 3852 3822

🕒 화-일 점심/저녁 월 저녁만

🌐 gerardsbistro.com.au



Ribs & Burgers

립과 햄버거 전문점

호주 대표적인 도시인 시드니, 멜번, 퍼스, 브리즈번까지 총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립과 햄버거가 유명한 곳이다.

📍 39 James Street, Fortitude Valley QLD

☎ +61 7 3252 5880

🕒 11:00-21:30 (Sat,Sun ~23:00)

🌐 ribsandburgers.com



The Three Monkeys

커피 전문점

브리즈번 웨스트 엔드 지역의 대표적인 카페 쓰리몽키스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차이티라떼를 꼭 맛보자!

📍 58 Mollison St, West End QLD 4101

☎ +61 7 3844 6045

🕒 09:30-23:00

🌐 웨스트엔드의 거리도 함께 둘러보자





Jamie's Italian

이탈리아 레스토랑

세계적인 셰프 제이미 올리버의 레스토랑으로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가성비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기에 추천!

- 📍 37 Edward St, Brisbane City
- ☎ +61 7 3144 3000
- 🕒 11:30~22:00
- 🌐 jamieoliver.com



Brew

카페

시티 중심에 있지만, 골목길 안쪽에 있어서 찾기는 쉽지 않은데도 커피와 브런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서 늘 북적거린다. 특별한 카페 찾는다면 강추!

- 📍 Lower Burnett Lane, Brisbane City
- ☎ +61 7 3211 4242
- 🕒 8h~22h 요일마다 다름
- 🌐 www.brewcafeandbar.com.au



Cha Cha Char

스테이크 전문점

리버사이드 지역은 고급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차차차는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멋진 뷰와 함께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 📍 Shop 5, 1 Eagle St, Brisbane, QLD 4000
- ☎ +61 7 3211 9944
- 🕒 Mon-Fri 12h~23h Sat,Sun 18~23h
- 🌐 www.chachachar.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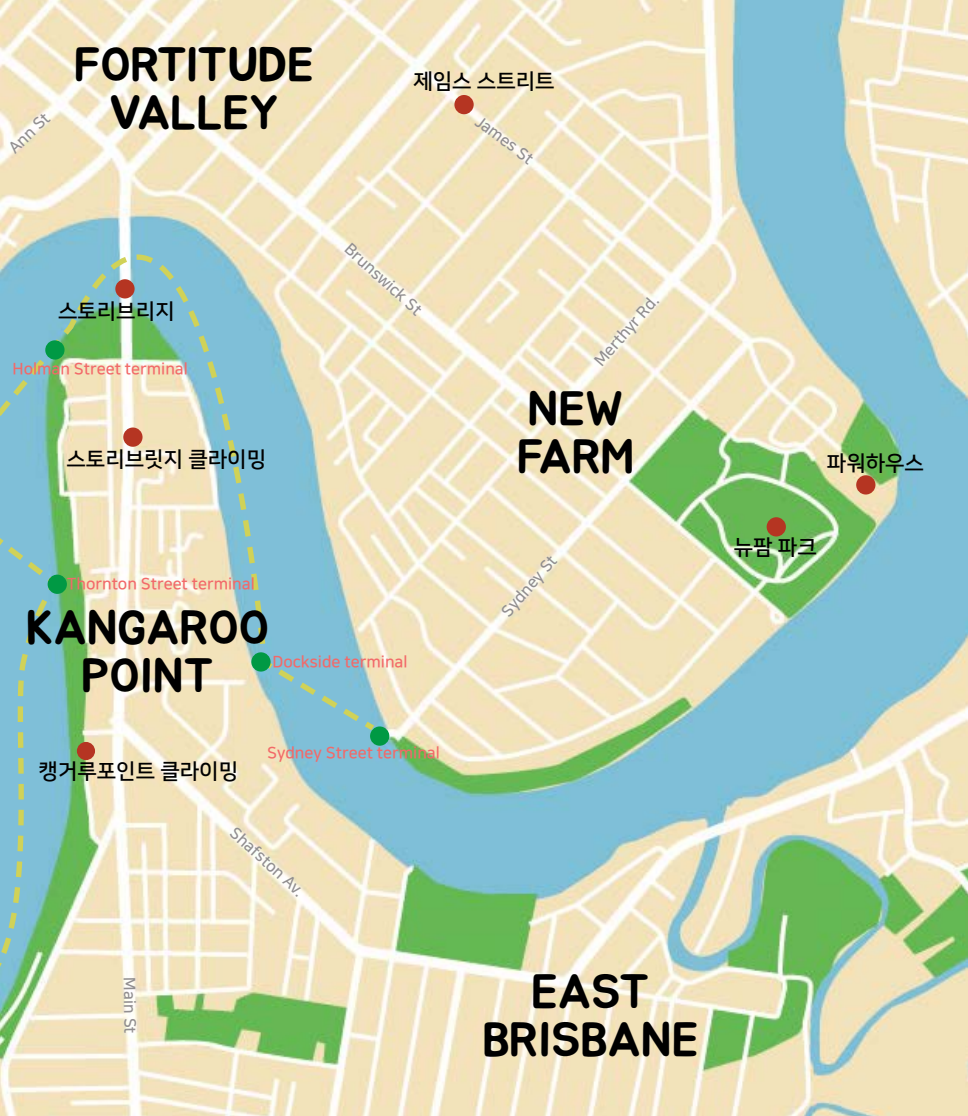
브리즈번 City Map



퀸즈랜드 교통카드 Go Card

브리즈번을 비롯한 퀸즈랜드 자유여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 지하철, 페리, 기차, 트램, 공항철도 등 Translink 모든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Go Card 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고카드는 한국의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구매는 기차나 지하철 정류장 및 Buy 표시된 세븐일레븐 등이고, 충전 역시 Top up 표시된 세븐일레븐 등에서 가능하다. 일주일(월-일) 내 9회 이용부터는 50% 할인 이용이 자동 적용된다.





— — — — — 브리즈번 무료버스 시티 루프

Loop이라는 표시가 있는 시티 순환 버스로 중앙역, 퀸스트리트몰, 보타닉가든, 리버사이드 등 시내 주요 관광지를 지나가며, 월~금요일까지 7시~18시만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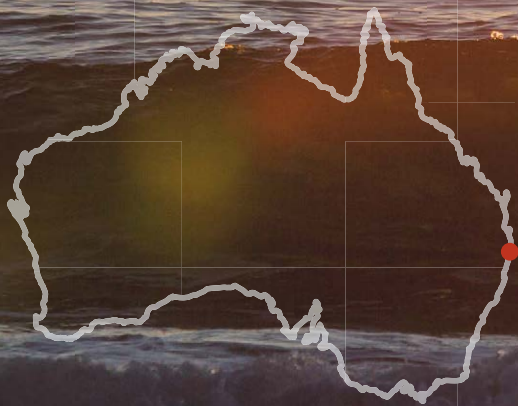
— — — — — 브리즈번 무료페리 시티 호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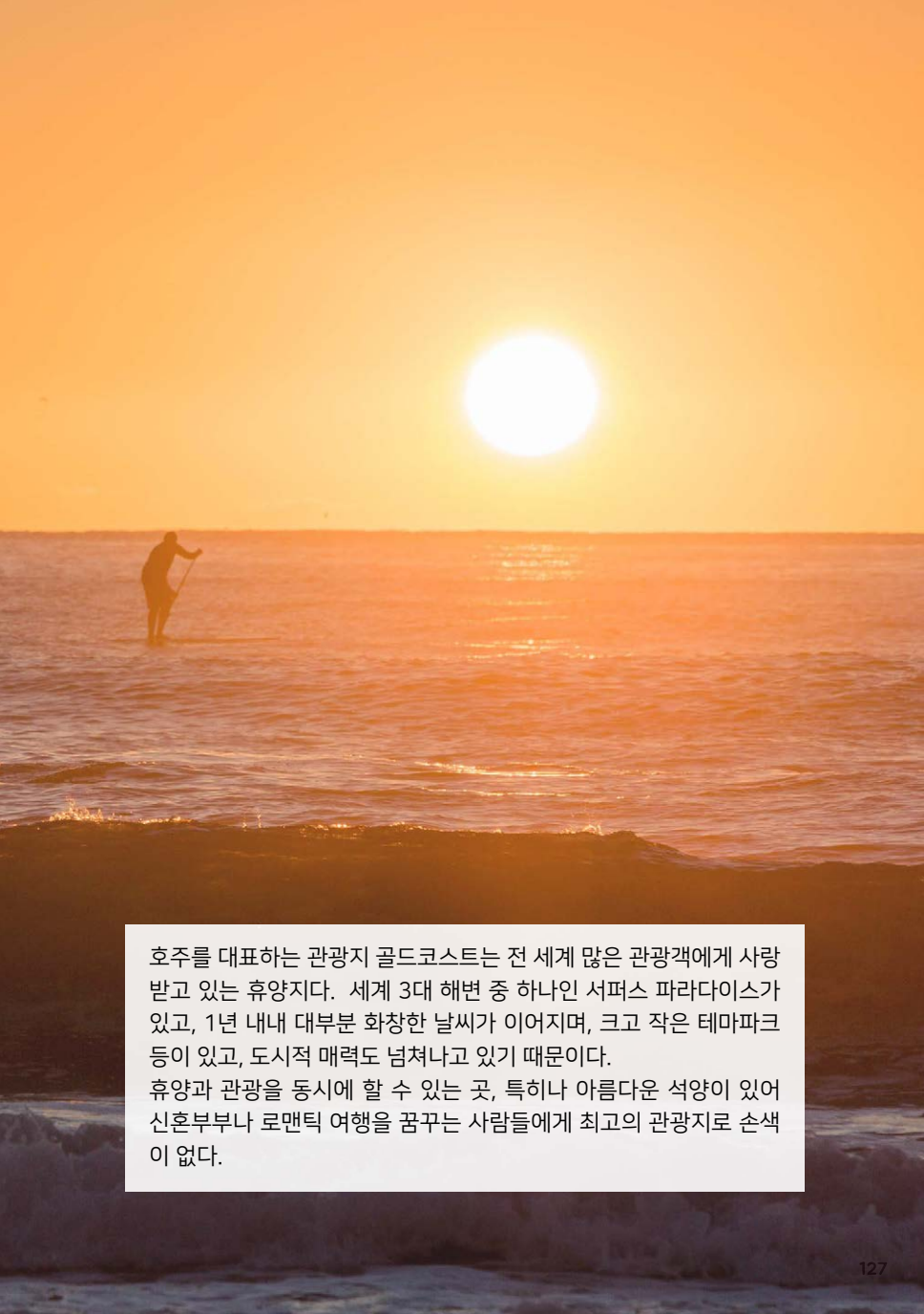
브리즈번 중심부 8개 역만 운영하는 무료 페리로, 아침부터 밤까지 운행하기에 야간에 이용하면 멋진 야경까지 볼 수 있어서 좋다.



골드코스트

Gold Coast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골드코스트는 전 세계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 받고 있는 휴양지다.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인 서퍼스 파라다이스가 있고, 1년 내내 대부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테마파크 등이 있고, 도시적 매력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 특히나 아름다운 석양이 있어 신혼부부나 로맨틱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

Surfers Paradise



골드코스트를 대표하는 해변, 서퍼스 파라다이스는 서핑에 알맞은 파도가 있어서 서퍼들이 좋아하는 곳이라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서핑뿐 아니라 5km에 달하는 끝없는 황금빛 모래 해변이 아름답고, 특히 환상적인 석양이 있어 로맨틱한 해변을 느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거나 서핑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모래사장도 너무 좋았다. 모래사장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공놀이를 하는 현지인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었을 정도로!

스카이 포인트

Sky Point



골드코스트의 대표적인 건물인 스카이 포인트 빌딩 꼭대기 77층엔 전망대가 있는데, 호주에서도 유일하면서 세계에서 드문 비치 뷰 전망대이다.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역시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인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것만으로 이곳을 찾을 이유는 충분하다. 아찔한 건물 밖을 클라이밍으로 둘러보는 스카이프oint 클라이밍도 인기가 높다.

📍 9 Hamilton Ave, Surfers Paradise QLD 4217 ☎ +61 7 5582 2700

🕒 07:30-19:30 🌐 skypoint.com.au

퍼시픽 페어

Pacific Fair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퍼시픽 페어는 골드코스트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다. 유럽식 갤러리아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 안에 300개에 달하는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데 브랜드숍부터 기념품 가게, 그리고 레스토랑과 슈퍼마켓 등 종류도 다양하다. 쇼핑센터 입구 부근에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곳에서 할인쿠폰을 발급해준다.

📍 Hooker Blvd, Broadbeach QLD 4218 ☎ +61 7 5581 5100
 🕒 09:00-18:00 (Thu ~21:00, Sun ~17:00) 🌐 www.pacificfair.com.au

포인트 덴저

Point Danger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에서 차로 약 30분, 퀸즈랜드 주의 가장 끝부분이면 서 뉴사우스웨일스의 경계에 있는 포인트 덴저는 예전에 캡틴 쿡이 산호초가 많아서 배를 정박하기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고, 해변에서 해수욕이나 서핑하기도 좋다.

📍 Marine Parade, Coolangatta QLD 4225

☎ +61 7 5582 8211

5

드림월드

Dreamworld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테마파크 드림월드는 호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테마파크 안에는 골드러시 시대의 골드 타운이 재현된 거리를 비롯해 캥거루와 코알라를 만날 수 있는 동물원, 그리고 100여 개에 이르는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동산이 있다.

📍 Dreamworld Pkwy, Coomera QLD 4209 ☎ +61 7 5588 1111

🕒 10:00-17:00 🌐 dreamworld.com.au

6

씨월드

Sea World

골드코스트의 많은 테마파크 중 씨월드는 호주 최고의 해양레포츠 테마공원이다. 특히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에 바다를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물과 관련된 다양한 어트랙션은 물론, 돌고래쇼나 돌고래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 Seaworld Dr, Main Beach QLD 4217

☎ +61 7 5588 2222 🕒 09:30-17:00 🌐 seaworld.com.au

무비월드

7

Movie World



워너 브라더스 영화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재현한 거리를 중심으로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어트랙션과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 무비월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 스톤트 드라이브 2'의 카 액션을 놓치지 말자!

📍 Pacific Motorway, Oxenford QLD 4210

☎ +61 7 5573 3999 ⌚ 09:30-17:00 ... movieworld.com.au

파라다이스 컨츄리

8

Paradise Country



호주의 전통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팜스테이 글램핑장으로 농장 내부에는 캥거루와 코알라, 그리고 양들과 말들도 만날 수 있다. 하루 한 번 양털 깎기, 카우보이쇼 등을 보여주고, 전통 바비큐 식사나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 Production Drive, Oxenford QLD 4210 ☎ +61 13 33 86

⌚ 09:30-16:30 ... paradisecountry.com.au

열기구 투어



골드코스트의 멋진 풍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열기구의 매력은 충분하다.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들인 코알라, 캥거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열기구를 타고 해가 뜨는 시간, 골드코스트의 하늘을 날아보자!

호텔 앞으로 온 픽업 버스를 타고 골드코스트 시내에서 새벽 4시경 출발한다. 약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고원지대인 오렐리 지역 도착하면,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열기구를 약 30분~1시간가량 탑승하고 내려와 열기구를 다시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두 함께하게 되고, 탑승 후, 탑승 인증서는 물론 호주식 아침 식사와 샴페인이 제공된다.

Hot Air Balloon

골드코스트뿐 아니라 브리즈번, 케언즈 등 다양한 지역의 열기구 투어를 운영하는 회사로 호주에서 가장 큰 열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 www.hotair.com.au



처음 열기구가 생겼을 때는 무사히 착륙하는 것이 행운이던 시절이라서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의미로 샴페인으로 축하를 했다고 한다. 그런 유래로 지금도 샴페인을 마신다.



퀸즈랜드 여행에서 교통 편이 쉽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거나 조금 더 자유로운 여행을 하려면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하는 것도 좋다. 자동차 렌트는 Avis와 같은 렌터카 회사에서 예약한 후, 예약한 렌터카 매장을 찾아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자동차를 픽업하면 된다. 픽업 시 차량의 상태는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과 함께 체크를 해두어야 한다. 반납 시에는 지정된 반납 장소에 연료는 원래 있었던 만큼 채워서 반납하면 끝!

호주 운전은 운전대가 한국과 반대인 것을 빼놓고, 모든 법규는 한국과 같다. 운전에 미숙한 경우 특히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운전하자!

차가 있으니까 특별한 목적지가 없다고 해도, 그냥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다. 드라이브 하다가 멋진 장소를 만나면 잠시 멈춰 갈 수 있기도 하고!



서핑 레슨받기



서퍼들의 천국, 골드코스트까지 왔는데 서핑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넘치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서핑에 도전해보길 권한다. 골드코스트 지역은 서핑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에 어느 해변이든 서핑을 하기엔 좋지만, 가장 적합한 곳은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이다.

만약 한 번도 서핑을 해보지 않았다면, 서핑 레슨을 통해 서핑을 배워볼 수 있다. 서핑레슨은 전문 강사와 함께 약 2시간 정도 이루어지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 교육을 먼저 받고 물에 들어간 후, 서핑보드로 파도를 어떻게 타면 되는지 교육을 받는다. 한 번의 레슨으로 멋진 서퍼들처럼 서핑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서핑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으니 한 번쯤 도전해보자!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받는 서핑 레슨은 초보자도 배울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주어서 참 좋았다. 될 때까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신 쌤께 감사해요!



Moo Moo

스테이크 전문점

스테이크 맛집으로 잘 알려진 무무는 2006년 골드코스트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이래, 꾸준히 수상을 하며 골드코스트 대표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 📍 2685 Gold Coast Hwy, Broadbeach
- ☎ +61 7 5539 9952
- 🕒 12:00-15:00 / 17:30-late
- 🌐 www.moomoorestaurant.com



The Fish House

생선요리 전문점

이탈리안 셰프의 멋진 생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피쉬 하우스! 생선을 직접 고르거나, 요리 전 재료 상태를 미리 확인시켜서 신선함을 강조하는 레스토랑이다.

- 📍 50 Goodwin Terrace, Burleigh Heads
- ☎ +61 7 5535 7725
- 🕒 Tue-Sun lunch 12:00~ Dinner 17:30~
- 🌐 thefishhouse.com.au



Peter's Fish Market

피쉬 앤 칩스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수산시장 같은 곳인데, 피쉬앤칩스 집으로 더 유명하다. 튀기는 생선의 종류도 직접 고를 수 있고, 소스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 120 Seaworld Dr, Main Beach QLD
- ☎ +61 7 5591 7747
- 🕒 09:00-19:30
- 🌐 petersfish.com.au





퀸즈랜드 테마 여행

퀸즈랜드 여행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싶다면, 하나 이상의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같은 장소라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행하는지에 따라 그곳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퀸즈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 위주로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 가족 여행이거나 커플 여행이라면 함께 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퀸즈랜드는, 배낭여행부터 럭셔리 여행, 휴양, 관광 등 다양한 매력이 함께 있는 곳이다.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고려해 나만의 특별한 퀸즈랜드 여행을 만들어보자!



— 퀸즈랜드 테마여행 —

퀸즈랜드 대표 관광지

#thisisqueensland

퀸즈랜드는 도시부터 바다, 열대우림, 사막 등 다양한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다.
어떤 하나의 테마를 찾기보다 퀸즈랜드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위주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소개한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 일정을 잡아보자.

퀸즈랜드 여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브리즈번**이다. 퀸즈랜드를 대표하는 도시이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각종 레스토랑이 있어 즐기기에 좋고 다양한 쇼핑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다. **사우스뱅크**엔 인공해변과 공원이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전망 좋은 **캥거루 포인트**에 올라 노을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밤이 되면 리버사이드 지역을 찾아 맥주 한 잔과 함께 멋진 야경도 꼭 즐겨보자.



서퍼들의 서핑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을 퀸즈랜드로 이끄는 만큼, 퀸즈랜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골드코스트 해변**을 단연 손꼽게 된다. 특히 해가 뜨는 이른 아침과 해가 지는 이른 저녁 시간에 태양의 붉은색이 더해진 해변에서 서핑하는 서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된다. 만약 서핑을 직접 하고 싶다면, 초보자라도 서핑스쿨에서 서핑을 배울 수 있으니, 어렵지 않게 서핑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골드코스트가 해변으로 유명하다면, 바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에게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뺄놓을 수 없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여행하려면 유람선을 타고 유람을 하거나, 헬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보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바닷속을 뺄놓으면 안 된다.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통해 바닷속 여행을 떠나보자!



케언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퀸즈랜드에서 관광 도시로는 최고의 도시로 손꼽히는 이유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열대우림 속 **쿠란다 마을**로 향하는 관문이 되는 이유가 더 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와 클래식한 열차가 있고, 원주민이 있고, 코알라와 캥거루가 있는 쿠란다 마을도 함께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퀸즈랜드에는 여러 모래섬들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 섬인 **프레이저 아일랜드**나 사막이 있는 **모튼 아일랜드** 등 섬으로 신나는 모험을 떠나, 퀸즈랜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100% 만끽해보자.



— 퀴즈랜드 테마여행 —

퀴즈랜드의 바다

#beach

해안가를 따라 형성된 도시들을 둘러보게 되는 퀴즈랜드 여행의 특성상, 바다를 빼놓
고는 퀴즈랜드 자연환경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다 똑같은 바다, 같은 것 같은 해변이
라도 어디인지에 따라 그 느낌 자체가 다르고 매력도 다양하기에 넓은 퀴즈랜드의 해
변 중 어디를 중심으로 여행할지에 따라 여행 스타일도 많이 달라진다.



레인보우 비치는 72가지 이상의 색상을 가진 모래 절벽 때문에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이 해안을 달려보는 것만으로 호주 해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중간중간 다른 색상의 모래들을 모아, 색색의 이름을 모래에 새겨보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화이트 해변 비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온 곳이다. 화장실을 비롯해 배 선착장도 따로 없을 정도로 상업적인 시설이 전혀 없는 깨끗한 해변이며, 정말 고운 하얀 모래사장이 꽤 길게 펼쳐져 있다. 이 모래는 98%가 유리나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인 규토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서핑을 좋아한다면,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이나 **물룰라바 비치** 등을 찾아보면 좋고, 절벽이나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사 비치**나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인디언 헤드**도 추천한다.



성혜니의 추천

퀸즈랜드의 해변은 가보면 알겠지만 보는 순간 뛰어들고 싶어진다.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뛰어들 수 있을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헤엄치고 놀고 싶은 바다를 앞에 두고도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매우 우울해진다.

꼭 반드시 어딜 가나 수영복을 챙겨 다니길!!



— 퀸즈랜드 테마여행 —

모험을 즐기는 당신이라면

#adventure

한바탕 신나게 액티비티한 레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라면, 역시 퀸즈랜드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행운일지도 모르겠다. 퀸즈랜드는 바다, 열대우림 등의 자연환경과 사막, 모래사장 등 오프로드 지역도 많아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퀸즈랜드 액티비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양 레포트가 생각난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멋진 바닷속을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다이빙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스쿠바두나 헬멧 다이빙** 등을 하거나,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을 탐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볍게 스노클링으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 요즘 뜨겁게 떠오르는 해양레포츠 중 하나인 바다 오토바이 **씨봄**을 타보는 것도 추천한다. 씨봄은 영화 007에서 등장해서 꽤 인기를 끌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바다 위와 바닷속까지 달려보면 어느덧 스트레스가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그리고 퀸즈랜드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서핑**! 특히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등의 해변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해변을 걷거나 해수욕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서핑을 체험해 보길 추천한다. 1~2시간 교육만으로 멋지게 서핑보드를 타긴 어려워도 강사와 함께 라면 충분히 서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바다 탐험을 끝냈다면 이제 하늘로 가보자. **골드코스트나 케언즈** 등을 여행할 때는 하늘을 나는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만날 수 있는데,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는 것도 좋고, **헬기투어**로 헬기를 타고 골드코스트 해변이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하늘 위를 둘러보는 것도 너무 짜릿한 경험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액티비티로 짜릿한 퀸즈랜드에서의 추억을 만드는 것도 강력 추천한다. 특히 케언즈는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스카이다이빙 장소로도 손꼽히는 곳이기엔 만약 살면서 딱 1번만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퀸즈랜드에 그 영광을 안겨주어도 좋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체험도 좋지만, **빌딩 클라이밍**도 퀸즈랜드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추억이 되기도 한다. 골드코스트의 **스카이 포인트 빌딩**이나 브리즈번의 **스토리 브리지**에서는 빌딩 클라이밍을 통해 몸에 안전줄을 묶고 건물 밖, 혹은 다리 위를 걸어서 올라간다. 클라이밍은 건물뿐 아니라 브리즈번강 변의 **캥거루 포인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브리즈번 여행에서 꼭 한 번쯤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더불어, 브리즈번 강변에서는 **카약** 등 해양레포츠를 즐겨볼 수도 있다.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 퀸즈랜드의 모험! 이런 모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이저 아일랜드**도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가 되어준다. 긴 모래 해변의 오프로드를 따라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달려보고, 모래 숲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나오는 맑은 호수에 몸을 던져 보는 것으로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 퀴즈랜드 테마여행 —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

#family

아이와 함께 여행하고 싶은데, 호주 퀴즈랜드를 선택하면 어떨까 고민이 되는 분들이라면, 자신 있게 퀴즈랜드로 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영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이라고 해도, 안전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퀴즈랜드에는 아주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도 편리하고, 리조트 형식의 숙소도 많고, 쉽게 보지 못하는 자연환경도 많기에 더 많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퀴즈랜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에서 퀴즈랜드를 여행지로 선택했다면, 무엇보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자연환경을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것 같다. 호주는 바다, 열대우림, 사막, 모래 섬과 같은 신기한 자연환경이 가득하다. 특히 연중 따뜻한 날씨 덕에 어느 계절 여행하든지 상관없이 퀴즈랜드는 늘 좋은 가족 여행지가 된다.



리조트 중심으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브리즈번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모튼 아일랜드의 탕갈루마 리조트**를 찾아보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사막 투어나 고래 투어 등 신기한 액티비티가 가득하다.



만약 호기심 많은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농장 체험도 추천할 수 있는데, **골드코스트의 파라다이스 컨츄리**는 양털 깎기, 캥거루와 코알라 만나기 등 동물 체험도 할 수 있고, 글램핑이 마련되어 있어서 농장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자연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깨는 추억도 만들 수 있다. 새소리에 일어난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농장을 산책하면, 내 앞에 보이는 동물이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캥거루나 에뮤라는 것에 신선한 기분이 느껴진다.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각종 테마파크를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다. 골드코스트에는 다양한 테마파크들이 있는데, **드림월드, 씨월드, 무비월드** 등 각각 테마가 다르다. 드림월드는 캥거루나 코알라를 만날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가득하다. 씨월드는 헬기투어나 돌고래쇼 등 바다와 물 이야기가 가득하고, 무비월드는 영화 세트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슈퍼맨이나 배트맨 등 히어로들을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자연환경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브리즈번** 근교의 **론파인 국립공원**을 찾아보면, 캥거루 코알라와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열대우림 지역인 **케언즈의 쿠란다 마을**을 탐험하면서 수륙양용 자동차를 타보거나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등을 타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된다.



— 퀸즈랜드 테마여행 —

로맨틱한 신혼여행

#honeymoon

호주는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기도 예전부터 꽤 오랫동안 신혼여행지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휴양과 로맨틱한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호주의 다른 지역보다 퀸즈랜드 여행을 추천할 수 있는데, 세계 3대 해변부터 럭셔리한 리조트, 다양한 이색체험과 액티비티,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맨틱한 신혼여행으로 퀴즈랜드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골드코스트**를 중심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다. 골드코스트는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인 **서퍼스 파라다이스 해변**이 있어서 해변에서의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일 년 내내 대부분 맑은 날씨와 따뜻한 기온 덕에 언제든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력 중 하나다. 하지만, 골드코스트 해변을 더욱 로맨틱하게 느끼려면 해가 지는 시간에 붉어진 노을을 바라보는 것. 해 질 녘 붉은 태양의 해변을 거닐며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퀴즈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나온 것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만약 조금 더 조용한 해변을 찾고 싶다면, **횃선데이제도의** 작은 섬이나 리조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횃선데이제도의 **화이트 해변 비치**는 여전히 자연 그대로 청정지역이면서 긴 새하얀 모래사장에서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하트 모양의 산호초로 유명한 **하트 리프**도 횃선데이제도에 있다. 하늘에서 하트 리프를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신혼여행의 달콤함이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호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행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역시 신혼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하늘 위를 헬기를 타고 날아 보는 것도 좋고, 바닷속을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탐험해 보아도 좋고, 그냥 스노클링을 하면서 물 위에서 추억을 남겨도 좋은 곳!

만약 휴양을 위주로 한 신혼여행을 결정했다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중심에 위치한 **해밀턴 아일랜드**도 추천할 수 있다.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면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조리 날려버리며 신혼의 첫 시작을 로맨틱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질 좋고 풍부한 식재료들이 많은 나라다. 퀸즈랜드 역시 바다에서 나오는 신선한 해산물과 청정 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식품, 청정우 등을 사용해 재료 자체의 신선함이 살아 있는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더불어 질 좋은 양조장들도 많아 맛있는 와인과 맥주 등도 즐길 수 있어 퀸즈랜드의 맛 탐험을 하는 것만으로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우선, 호주 여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먹는 음식이 바로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캥거루 스테이크**, **악어 스테이크** 등 다양한 육류 스테이크가 있다. 캥거루 스테이크는 호주에서는 인기 많은 로컬 푸드로 일반적으로 소고기 스테이크와 비슷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색 음식 치고는 특이한 맛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요리다.

그리고 **미트파이** 역시 퀸즈랜드 여행에서 한 번쯤 맛보면 좋다. 미트파이는 호주의 대표적인 로컬 푸드로 고기를 다져서 소스와 야채 등을 넣어 만든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다. 이런 음식들과 곁들여서 퀸즈랜드를 대표하는 맥주 **포엑스(XXXX)**를 마셔보는 것도 좋고, 호주인들이 즐겨 마시는 **레몬라임비터나 진저 비어**를 마셔보는 것도 좋다.



성혜니의 추천

브리즈번에서 먹었던 수제 햄버거 **립스앤버거** 엄청 큰 크기에 놀랐는데, 맛도 엄청났다! 그리고, 프레이저 아일랜드랑 브리즈번 캥거루 포인트에서 먹었던 **바비큐!** 음식보다 분위기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참 느꼈지!





★★★ 쇼핑매니아

#shopping

여행의 즐거움에서 쇼핑을 빼놓을 수는 없다. 호주는 워낙 청정 지역이 많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여행지에서 생산된 질 좋은 꿀이나 건강식품들이 인기가 많다.

특히 꿀 중에서도 최고급 제품인 **마누카 꿀**은 호주 여행에서 필수 쇼핑 목록이기도 한데, 마누카 꿀은 항생과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마누카 꿀은 UMF 지수에 따라 효능도 차이가 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훨씬 좋은 품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UMF 5 이상을 선택하면 무난하다.

마누카 꿀 외에도 **프로폴리스**도 워낙 유명한 호주 쇼핑 품목이다. 프로폴리스는 원액 형태나 알약으로 먹는 형태나 치약 등 종류가 다양한데, 프로폴리스는 면역 증강, 항염, 항산화 등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기관지나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 도움이 좋아서 구강용 스프레이 형식이나 치약 등이 인기가 높다.

그리고 슈퍼마켓을 들르게 된다면, 꼭 사야 하는 호주의 국민 과자 '**팀탐**' 다양한 맛 종류가 있지만, 역시 오리지널이 가장 인기가 높다. 팀탐이 인기가 높은 것은 우선 맛을 봐야 느낄 수 있다. 처음엔 너무 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먹다 보면 어느새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생겨 악마의 과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공감하게 된다.

더불어, 퀸즈랜드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기념품 샵에서 **코알라와 캥거루 기념품**들도 잊지 말자! 특히 호주 여행을 할 때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캥거루 표지판으로 만든 작은 기념품들이 인기가 높다.



퀸즈랜드 하이라이트 7일

케언즈부터 브리즈번까지 퀸즈랜드의 주요 도시 위주의 추천 여행 루트!
짧은 시간 퀸즈랜드의 대표적인 모습을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버킷리스트 체크

- ✔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바닷속 탐험하기
- ✔ 서퍼들의 파라다이스, 골드코스트 해변에서 서핑하기

브리즈번 + 근교 7일

짧은 시간 퀸즐랜드를 여행하고 싶은 분 중 브리즈번 중심으로 여행하는 추천 루트!
퀸즐랜드 대표 도시인 브리즈번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버킷리스트 체크

- ✔ 브리즈번에서 현지인처럼 스며들어 보기
- ✔ 골드코스트와 선샤인코스트의 테마파크 즐기기

자연을 따라가는 10일

케언즈의 열대우림, 바닷속 탐험을 비롯해 프레이저 아일랜드의 오프로드까지!
퀸즈랜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



버킷리스트 체크

- ✓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별 보러 가기
- ✓ 사륜구동 자동차 타고 해안 드라이브하기

가족과 함께 하는 10일

아이들이 함께하는 여행이거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이 코스를 추천!
케언즈부터 브리즈번까지 주요 도시는 물론, 테마파크와 자연, 동물을 만날 수 있다!



버킷리스트 체크

- ✔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바닷속 풍경 만나기
- ✔ 잊고 살던 동심의 세계에 잠시 돌아가 보기

항공

대한민국에서 퀸즈랜드로 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브리즈번과 케언즈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직항 편을 이용하면 약 10시간 만에 브리즈번에 도착한다. 케세이패시픽항공을 이용해 홍콩을 경유해 갈 수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콴타스항공의 시드니, 브리즈번행 노선을 이용한 다음, 시드니 공항 또는 브리즈번 공항에서 호주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이용해도 좋다. 호주 국적이인 콴타스항공을 이용하면 국내선 이용이 더욱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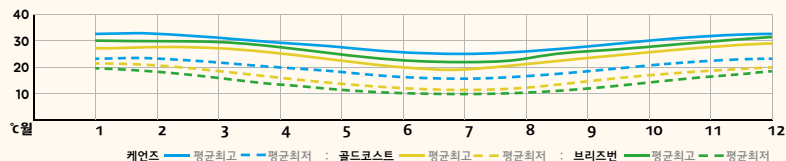
비자

호주를 여행하려면, 사전에 전자관광비자 (ETA) 를 취득해야 한다. 전자관광비자는 여행사 혹은 항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개인이 여행을 준비한다면, 호주의 비자 신청 사이트를 통해 쉽게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여권과 신청 비용 20호주달러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준비하면 되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www.eta.immi.gov.au/ETAS3/etas

기후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며 계절이 한국과 반대다. 한국이 여름인 경우 호주는 겨울, 한국이 겨울인 경우 호주가 여름이다. 퀸즈랜드의 대표 도시인 브리즈번과 케언즈는 연평균 기온이 한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일 년 내내 여행하기에 좋은 기후를 보여준다. 물론 봄과 가을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쌀쌀해서 가디건이나 겹옷을 준비해야 하며, 여름에는 최고기온이 평균 29~31도 정도로 한국만큼 덥다. 겨울은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오전과 밤에는 두툼한 외투가 필요하다.



시차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인 호주는 큰 땅만큼 3개의 기준시를 가지고 있다. 동부, 중부, 서부로 나뉘어 3개의 기준시를 가지고 있는데, 퀸즈랜드 주는 동부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표준시보다 10시간이 빠르며, 한국과의 시차는 +1이다. 즉, 한국이 오전 8시면, 퀸즈랜드는 오전 9시이다. 더불어, 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때에 따라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퀸즈랜드 주는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다.

통화

호주의 화폐단위는 호주달러(AUD)이며, 1달러는 약 870원 (2017년 11월 기준)이다. 호주달러 환전은 국내의 여러 은행과 외화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지만 모든 은행과 환전소에서 호주달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니 사전에 호주달러 환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환전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기

호주의 전압은 220~240V, 50Hz를 사용하므로 한국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세 개의 핀으로 된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콘센트 규격이 달라서 어댑터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미리 트래블 어댑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화

호주 국가번호 +61, 퀸즈랜드주 지역 번호 07

호주에서 경찰차, 구급차, 응급 서비스 전화번호는 000 이다.

호주 내 대한민국 대사관 +612-9270-4100

대한민국 영사 콜센터 (무료) +11-00-2100-0404

대한민국 영사 콜센터 (유료) +11-822-3210-0404

문의

호주 퀸즈랜드주 관광청 queensland.com



제작 후기



김 지 선

Writer, Photographer

언젠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 퀸즈랜드. 호주에서 유독 내가 좋아하는 퀸즈랜드를 많은 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취재부터 촬영, 그리고 글 쓰는 것과 디자인까지 쉬운 일은 없었지만, 여행만큼 설레는 책 만드는 일은 참 기분이 좋았던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책, 어때요? 이 책을 사랑해줄 독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임 성 현

Model, Writer

누군가에게 내가 다녀온 장소를 추천한다는 게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첫 시작은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최대한 즐기면서 정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담아 보려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책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퀸즈랜드를 더욱 많은 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에 도움 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 수

Photographer

호주 퀸즈랜드 주는 총 3번 방문했지만 이번 가이드북 취재를 하면서 더 큰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퀸즈랜드는 멋진 자연환경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매력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추천하는 곳인데요. 이런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취재한 결과물이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퀸즈랜드주 가이드북을 통해 더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pecial Thanks To.

현지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 주신 현지 코디네이터 이석훈 님에게 깊은 감사 인사 전합니다! 더불어 현지에 촬영과 취재로 협조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 전해요!



나의 버킷리스트 여행

QUEENSLAND

1판 1쇄 발행 2017년 11월 15일

글 김지선, 임성현

모델 임성현

사진 김지선, 이진수

현지코디네이터 이석훈

편집 김지선

디자인 김지선

기획.제작 샤페트 미디어, 새벽감성 출판사

발행 호주 퀸즈랜드주 관광청

facebook.com/visitqueensland

* 이 책의 저작권은 호주 퀸즈랜드주 관광청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